

# 濟州道民의 觀光所得 增大方案에 관한 研究

—民泊業의 活性化方案을 中心으로—

高 忠 錫 ( 濟州大 )  
張 聖 洙 ( " )

目	次
I. 序 論	1. 現地調査方法
1. 研究目的	2. 民泊客實態
2. 研究範圍	3. 民泊業實態
3. 研究方法	4. 民泊施設 現況
II. 濟州道民의 觀光所得增大와 民泊業	IV. 濟州道内 民泊業의 活性化 方案
1. 地域觀光輸入의 所得連繫化	1. 民泊業活性化의 懸案問題
2. 民泊業의 意義 및 指定·定着	2. 民泊業의 活性化方案
III. 濟州道内 民泊實態에 대한 調査 研究	V. 結 語 < 參考文獻 >

## I. 序 論

### 1. 研究 目的

都市로부터 觀光地로 흘러드는 觀光收入은 오늘날 거의 일방적으로 農村에서 都市로 集中되고 있는 普遍的인 資金흐름 현상을 다소나마 緩和 내지 抑制시켜 줄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다. 이와 함께 우리는 地域開發手段이 극히 제한돼 있는 濟州道에서 地域總生産( GRP) 가운데 觀光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근간의 눈부신 濟州道の 觀光成長을 濟州道民의 實質所得增大와 연관시켜 음미해 보는 경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얼핏 보더라도 觀光活動의 실제적 터전—보다 구체적으로는 觀光서비스 機能의 집결지인 濟州市와 西歸浦市 두 都市内 都心이외의

觀光資源 立地地域 一에서 살아온 土着住民들에게는 觀光産業에의 직접적인 雇傭機會가 드문 데다가 觀光開發로 인해 오히려 전통적인 所得基盤이 잠식돼 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社會의 외부경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소위 ‘觀光公害’ 만이 덩으로 얹혀지고 있는 예가 점점 증가하는 실정이다.<sup>1)</sup>

이와 같은 괴리현상은 觀光開發 自體를 위한 地域外 輸入性向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住民投資의 부족에 따른 外地資本導入으로 말미암아 道內 觀光收入의 地域外 流出現象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파악된다.<sup>2)</sup>

그러므로 資本蓄積이 미비한 濟州道民들의 觀光投資對象으로 적합하며 地域外 輸入依存이 거의 없이 住民所得增大와 직결되는 유용한 觀光事業의 하나인 民泊業의 活性化方案을 탐색한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매우 의의있는 일이며, 특히 점차 고조되고 있는 濟州道內 農村 地域住民들 사이의 觀光開發에 대한 소외감을 감안하는 경우 研究의 현실적인 필요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濟州道內 民泊에 관한 研究는 아직까지 學術的 次元에서 中心主題로 취급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現況 資料의 수합·정리조차 미비된 실정인 바, 本研究에서 實態調査를 통해 밝혀질 濟州道內 民泊實態는 향후 이와 같은 研究의 基礎資料로서 活用될 素地가 큼과 동시에 觀光需要에 對備한 宿泊受容能力의 經濟的이고도 안정적인 확충 내지 多樣化 試圖에도 다소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研究 範圍

### 1) 內容的 範圍

濟州道の 觀光成長과 住民所得增大와의 괴리현상에 대처하여 그 연제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代案의 하나인 民泊業의 活性化方案을 地域觀光政策的 차원에서 규명해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濟州道內 民泊이 처한 需要·供給間의 현안문제를 實態調査를 통해 파악해 보고 나서 그에 따른 政策的인 支援方案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데 研究의 초점을 둔다.

### 2) 地域的 및 時間的 範圍

본고에서는 行政區域上의 濟州道를 研究對象地域으로 한정하였으며, 제반 引用資料의 내용은 가급적 現地調査時期를 전후한 1987年度 현재로 하여 제시하였다.

- 
- 1) 申幸澈, The Socio-cultural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in Cheju Island, 「濟州道와 하와이 間의 島嶼地域開發 協力」, 第2回 國際學術세미나 報告書(發表 및 討論), 濟州道, 1987, pp. 127-153. 및 沈相道, 「觀光現象이 原住民 地域社會에 미치는 社會文化的 影響; 濟州道를 中心으로」, 京畿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pp. 15-16.
  - 2) 高南旭·金泰保, “濟州道 觀光開發과 道民所得增大의 連繫推進方案”, 「社會發展研究」, 第2輯,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發展研究所, 1986, pp. 171-172.

단, 일부의 內容은 資料求得 또는 調査作業遂行上 부득이 原則에 가까운 範疇로서 掲載했다.

### 3. 研究 方法

본고에서는 設問調査方法이 중점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밖에 調査員의 觀察調査와 함께 일반적인 資料處理技法 및 趨勢分析方法 등이 원용되었다.

한편 資料는 文獻調査와 現地調査가 병행되었는데, 現地調査의 경우 자세한 內容은 第Ⅲ章 1節에서 記術하는 바와 같다.

## Ⅱ. 濟州道民의 觀光所得增大와 民泊業

### 1. 地域觀光收入의 所得連繫化

觀光開發은 地域經濟의 측면에서 觀光事業의 진흥을 통해 住民所得의 창출효과, 雇傭促進效果, 地域産業의 聯關波及效果, 地方財政收入의 增大效果 등을 일으켜 地域經濟成長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직접·간접으로 地域住民의 所得增大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觀光開發을 통한 住民所得增大은 觀光開發事業에 대한 投資效果和 더불어 觀光客의 觀光行動에 수반해 支出되는 消費의 波及效果에 의하여 地域經濟의 循環過程 속에서 계속 확대 波及되면서 이루어진다.

觀光客의 觀光行動에 수반해 支出되는 觀光消費는 직접 觀光産業의 收入이 되며 觀光企業體는 이러한 收入을 바탕으로 하여 企業活動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 觀光企業活動을 위해 필요한 支拂內譯은 크게 原材料의 購入支出과 貸金·報酬·利潤 등의 附加價値로서 분류되는데, 전자는 企業體의 去來를 통해 支拂되며 후자는 貸金으로서 家計收入, 企業保存利潤 形態로서 預金 혹은 企業家の 所得으로 귀속하여 일정한 地域經濟圈內를 계속 循環함으로써 地域의 住民所得增大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때 住民所得創出은 觀光消費의 乘數倍만큼 과급되나, 한편으로 '限界輸入性向'(marginal propensity to import)과 '限界所得漏出性向'(marginal propensity to income leak)에 따른 至大한 影響을 받게 된다.<sup>3)</sup> 여기에서 限界輸入性向이란 觀光客을 위한 觀光産業을 유지·운영하는 가운데 地域外의 製品이나 生産品을 어느 만큼 地域內로 輸入해 오느냐는 정도로, 예로써 濟州地域內에서 販賣되고 있는 土產品의 다수가 濟州地域外인 陸地部에서 도입되는 경우 土產品販賣活動을 통한 地域外의 所得創出效果는 절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限界所得漏出性向이란 地域外의 投資家가 觀光事業活動을 통해 얻은 利潤을 地域外로 流出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投資活動으로 나온 利潤이 當該 地域內

3) 上掲論文, p.207.

에서 再投資되지 않고 地域外로 유출되는 경우 流出된 것 以上の 所得創出效果를 감소시키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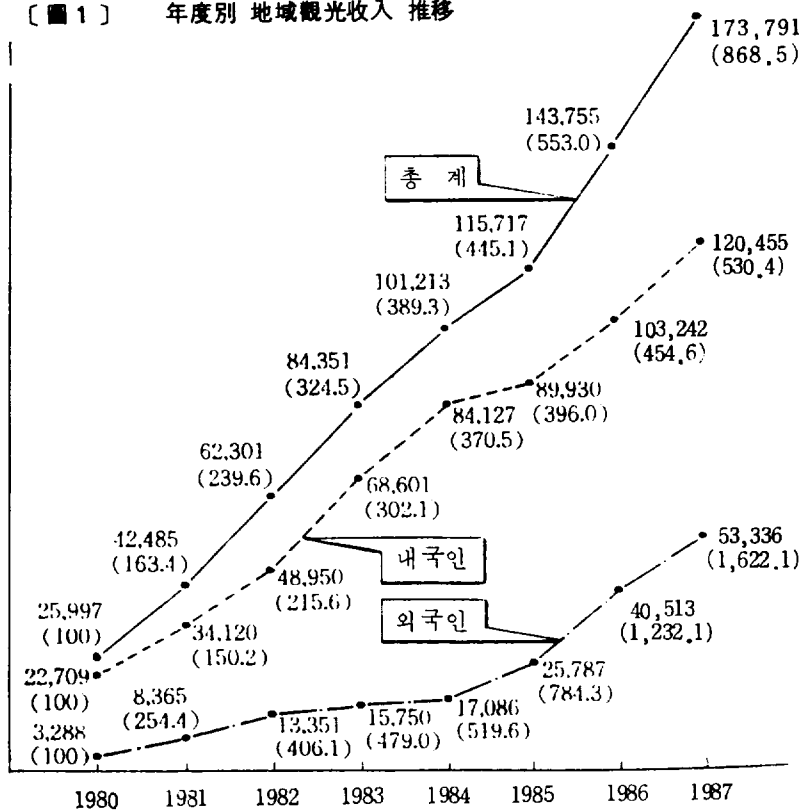
그러므로 觀光開發을 통한 住民所得 創出效果를 最大化하기 위해서는 地域으로 流入되는 輸入品을 可能な 限 地域内の 生産物이나 製品으로 대체시키고, 地域住民의 投資 및 地域外 投資家の 再投資를 적극 誘導 育成하는 방향으로 地域觀光政策을 펴나가는 것이

濟州道の 경우 年間 來道觀光客은 1987年 現在로 内國人 160萬 6,072名,外國人 15萬 2,389名으로 총 175萬 8,461名에 달하고 있으며,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年 代 中半 이후 年平均 約 13.5%에 이르는 높은 比率로 增加돼 왔다. 즉, 1980年度를 전후 한 一連의 國內騷擾事態 및 第2次 石油波動에 의한 景氣沈滯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每年 飛躍的인 增加趨勢가 견지돼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觀光客의 지속적 增加에 전승하여 濟州道の 地域觀光收入은 훨씬 더 높은 比率로 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圖1>에서 보는 바대로 1980年~1987年 사이의 기간 中 年平均 30%가 넘는 괄목할만한 신장세로 늘어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圖 1] 年度別 地域觀光收入 推移



자료: 제주도, 「통계연보」

註: 괄호안은 1980年度를 基準으로 한 % 比率임.

〈表 1〉 年度別 來道觀光客 現況

(단위 : %)

구분 연도별	합 계 (명)	국 적 별		성 별		교통수단별		여행형태별	
		내국인	외국인	남	여	항 공	선 박	단 체	개 인
1976	369,182	94.5	5.5	48.8	51.2	48.3	51.7	56.8	43.2
1978	651,648	94.0	6.0	64.1	35.9	57.0	43.0	51.1	48.9
1980	669,369	86.9	3.1	55.6	44.4	58.3	41.7	37.5	62.5
1982	860,334	94.8	5.2	58.2	41.8	67.8	32.2	25.6	74.4
1984	1,217,243	96.0	4.0	-	-	73.3	26.7	28.8	71.2
1986	1,492,308	92.2	7.8	-	-	76.0	24.0	62.2	73.8

資料 : 제주도, 「통계연보」, 1983 및 1987.

그러나, 이처럼 눈부신 觀光成長이 실제로 道民의 福祉增進과 어느 만큼 직결돼 왔느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濟州道民 특히 道内 觀光地住民에게는 所謂 ‘觀光公害’<sup>4)</sup> 라는 것이 눈에 띄게 可視化되어 온 반면, 觀光開發을 통한 住民所得의 增大效果는 限界輸入性向 및 限界所得漏出性向의 過多로 因해 상대적으로 낮아 開發에 따른 ‘相對的 收奪感’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만이 여러모로 누증돼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地域觀光收入의 增大를 實質的인 住民所得增大로 원활히 연계시킬 수 있는 觀光事業의 추진에 濟州道民 모두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에 관한 政策代案으로서

- 1) 限界資源과 中間技術을 活用한 內發的 開發
- 2) 觀光商品供給의 다양화 및 觀光客 受容態勢의 확립
- 3) 觀光産業과 第1次 産業과의 連繫性 強化
- 4) 在日同胞의 投資誘致 및 第3 Sector制度의 導入

等<sup>5)</sup> 이 비중있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政策代案들은 한마디로 既存의 觀光開發政策에 대한 반성을 중심으로 地域外 資本 위주의 大單位開發을 止揚하고 民泊業 등 地域内 乘數效果가 큰 非公式部門의 指導·育成을 통한 地域内資本 주체의 開發에 焦點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現在로서는 이들 代案의 점진적인 受容에 앞서 實態調査를 바탕으로 한 具體的인 事例檢討과 각 대안간

4) 朴壽伊·李愚泰, 「觀光企業經營論」, 博英社, 1974, pp.104-107.

5) 夫萬根, “濟州地域開發의 現在와 未來: 觀光開發을 中心으로”, 「濟州道와 하와이間의 島嶼地域 開發 協力」, 第1回 國際學術세미나報告書(發表要旨),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 1986, pp.48-52. 및 高南旭·金泰保, 前掲論文, pp.211-227.

의 유기적인 體系擴立에 보다 광범하고 면밀한 研究가 보완되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된다.

## 2. 民泊業의 意義 및 指定·定着

民泊이라 함은 ‘宿泊業을 本業으로 하지 않는 民家에서 旅行者를 宿泊시켜 一連의 經費를 支拂받는 宿泊便宜<sup>6)</sup>’를 일컫는다. 대개 季節的 혹은 임시적으로 民家の 副業形態로 영위되는 民泊은 宿泊施設로서 ① 料금이 저렴한데다, ② 家族勞動으로 家族的 雰圍氣가 유지되며, ③ 겸업으로서 다른 본업이 있고, ④ 利用客이 직접 飲食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즐거움을 體驗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다.<sup>7)</sup>

이 民泊은 外國의 경우 흔히 家庭訪問(home visit) 形態의 宿泊接客行爲로 등장해 그 유래가 꽤나 깊은 便인데, 각 나라마다 民泊을 이르는 명칭간에 差異는 있을지언정<sup>8)</sup> 그 본질적인 內容과 취지는 서로가 동일한 것이다.<sup>9)</sup>

우리나라에서 民泊家屋의 指定은 중전의 觀光事業振興法(1975年12月31日 觀光基本法과 觀光事業法으로 分離) 第2條 9項의 근거하에 1973年 서울特別市에서 처음 실시했다고 한다. 即, 外國人觀光客의 家庭訪問事業(home visit program)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각 區를 通해 觀光客을 자기 家庭에 초대하고자 하는 希望者를 選拔 등록시켰는데, 外國語가 가능한 家族員의 유무 및 生活水準程度 등 여러 가지 事項이 考慮되어 適格者로서 登錄된 家庭은 당시 173家口였었다. 그리고 현재는 ‘88 서울올림픽大會의 개최를 대비한 宿泊施設 確保方案의 일환으로서 政府高位官吏, 企業體幹部職員 및 社會著名人士의 家庭을 대상으로 7만 家口 정도를 指定해 확대·실시할 計劃이 樹立돼 있다고 한다.<sup>10)</sup>

濟州道의 경우 指定民泊의 본격적인 등장은 1980年 5月 濟州道當局에서 시달한 ‘民泊擴大運營指針’에서 비롯하는 바, 이 指針의 目的은 “道內 全地域 希望家屋을 대상으로 民泊을 擴大指定·運營함으로써 濟州民俗을 직접 體驗하려는 觀光客의 취향에 부응하고 觀光盛需期 기간중의 客室不足難을 해소하려는 데 있었다.<sup>11)</sup>

濟州道內 民泊業의 定着化를 도모하기 위해 시달된 이 指針은 그 基本方針으로서

- 1) 道全域을 대상으로 民泊家屋 擴大指定
- 2) 强制性을 지양한 自律的 希望家屋의 優先 指定
- 3) 既指定家屋의 整備

6) 金震燮, 「觀光學原論」, 大旺社, 1984, p.283.

7) 柳善茂, “새마을運動을 통한 東海岸의 民泊制度 改善에 關한 研究”, 서울市立大學附設 都市새마을研究所, 「研究論叢」, 第1輯, 1982, pp.110-111.

8) 예컨대 英國의 경우는 ‘Private Hospitality’, 日本의 경우는 ‘民泊’이라 이르고 있다.

9) 金震燮, 前掲書, pp.283-284.

10) 柳善茂, 前掲論文, p.112 및 p.148.

11) 濟州道, “民泊運營 擴大指針”, 公文(觀光 1530 198號), 1980.5.14日字.

- 4) 民泊案内센터의 運營強化
- 5) 民泊서비스의 강화
- 6) 民泊利用에 대한 PR 강화

등의 여섯 가지를 제시했으며,<sup>12)</sup> 또한 民泊指定家屋의 구체적인 施設基準을 定해

- 1) 家屋内外의 塗裝, 塗色이 양호할 것
- 2) 草家의 경우 内部施設이 改良된 것
- 3) 1室 以上の 방 確保가 가능할 것
- 4) 改良된 부엌과 化粧室이 있을 것
- 5) 各種 民具類가 많이 保存된 곳
- 6) 衛生的인 寢具, 食器를 갖추고 있을 것
- 7) 上水道 및 電氣施設이 된 곳
- 8) 防蟲網施設 또는 모기장이 비치된 곳
- 9) 돌담, 庭園樹 등 周圍環境이 양호한 곳
- 10) 衛生的인 飲食을 제공할 能力이 있을 것

11) 상기 基準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市長·郡守가 民泊家屋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곳 등을 基本要件으로 規定해 놓은 바 있다.<sup>13)</sup>

濟州道の 指定民泊은 현재 週末民泊과 季節民泊으로 구분 登錄돼 있는데, 실제조사에 의하면 季節民泊은 전부가 여름철에 국한해 運營되고 있다. 그리고 民泊業의 거의 대부분이 海水浴場 부근에서 營爲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日氣現象 내지 海水浴場利用客의 多寡에 의해 民泊運營上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으며, 아울러 民泊業의 活性化에도 제한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실정이다.

한편 濟州道内 指定民泊의 규모를 살펴보면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年末 現在 149棟 432室로서 調査되고 있는데, 이는 濟州道内 전체 宿泊受容能力의 4%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는 <圖 4>에서 보는 바대로 1984年度의 경우<sup>14)</sup>를 除外하고는 두드러진 변화 없이 유지돼 온 것이며, 고로 다소 피상적이지만 일반 宿泊業所의 急增趨勢에 비추어 볼 때 현격한 答보상태로서 간주되어진다.

그러나 産業化·都市化가 진전되어감에 따라서 都市人들의 마음가짐이 自然 속에 묻힌 스스로의 안일을 추구해 民泊을 利用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sup>15)</sup> 더우기 濟州道内 觀光地住民의 입장에서는 民泊業의 영위가 傳統의 生活手段인 第1次産業의 쇠퇴에 대응하여 우선 副業經營形態로 한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所得源이라 인식되어갈 것이기

12) 上掲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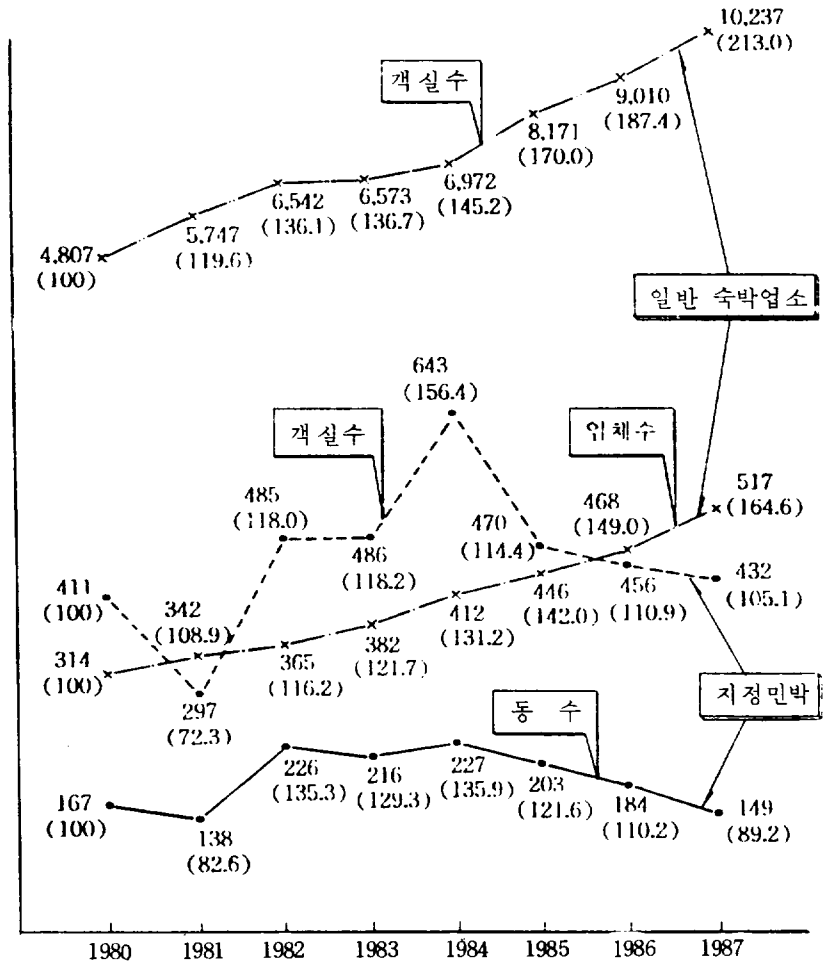
13) 上掲 資料

14) 第13回 全國 少年體育大會(1984. 5.25~5.29)가 濟州道에서 開催된 바 있음.

15) 柳善茂, 前掲論文, p.110.

때문에 指定民泊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民泊業에의 참여는 가일층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 年度別 宿泊業所 및 指定民泊 推移



資料 : 제주도, 「통계연보」

註 : 괄호안은 1980年度를 基準으로 한 %比率임.



< 表 2 >

指定民泊 現況

( 1987.12.31 현재 )

시·군별	이·동별 및 해수욕장별		동 수	객실수	소 계		비 고
					동 수	객실수	
濟州市	梨湖洞	梨湖 海水浴場	7	18	9	23	
	三陽洞	三陽 一洞	2	5			
北濟州郡	朝天邑	咸德 海水浴場	45	94	105	291	
	翰林邑	狹才 海水浴場	26	76			
		金 陸 里	7	12			
		飛 陽 島	2	4			
		今 岳 里	1	30			
	涯月邑	郭支 海水浴場	5	12			
	舊左邑	金寧 海水浴場	2	5			
		細 花 里	2	6			
牛島面	演 坪 里	4	17			도서 지구	
楸子面	永興里 외 3	11	35			도서 지구	
南濟州郡	安德面	和順 海水浴場	11	46	35	35	
		沙 溪 里	1	2			
	表善面	表善 海水浴場	3	10			
	南元邑	南 元 里	1	4			
	城山邑	新陽 海水浴場	3	7			
城 山 里		16	49				
합 계			149	432			17동 56실

자료 : 제주도

### Ⅲ. 濟州道內 民泊實態에 대한 調查研究

#### 1. 現地調查方法

##### 1) 調查方式

本調查研究를 위한 現地調查는 거의 모두가 閉鎖型으로 설계된 다음과 같은 2種의 設問紙와 觀察調查表에 의해 이루어졌다.

- 民泊客實態調查 設問紙 ..... 총 14 個 問項
- 民泊業實態調查 設問紙 ( 開放式質問 5 個 問項 포함 ) ..... 총 25 個 問項
- 民泊施設現況 觀察調查表 ..... 총 11 個 項目

각 設問紙의 경우는 훈련된 調査員<sup>16)</sup>이 調査對象者들에게 調査目的 및 設問內容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設問紙를 배부하여 應答者가 직접 記入하는 自己記述法을 이용하였으며, 觀察 調査表의 경우는 훈련된 調査員이 자신의 觀察結果를 調査項目의 閉鎖式 應答欄에 맞추어 기재하는 方式을 채택하였다.

## 2) 調査對象

民泊客實態調査는 조사기간 중 現地調査場所內 民泊家屋에 투숙했던 民泊客 258 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民泊業實態調査는 調査期間 中 現地調査場所에서 실제 面談했던 指定 民泊家屋의 民泊業主 91 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民泊施設現況에 대한 觀察調査는 民泊業實態調査가 가능했던 指定 民泊家屋만을 대상으로 實施하였다.

## 3) 調査期間

民泊客實態調査는 濟州道內 民泊盛需期の 마감期間인 1987.8.24 ~ 8.27 사이에 수행하였으며, 民泊業實態調査 및 民泊施設現況調査는 民泊盛需期가 지난 1987.9.11 ~ 9.13 사이에 수행하였다.

## 4) 調査地域

調査費用上 인근 小島를 제외한 濟州道 本道內의 주요 民泊所在地에서만 現地調査를 실시하였는데, 그 調査地로서는 三陽, 咸德, 金寧, 細花, 梨湖, 郭支, 狹才, 金陵, 城山, 新陽, 和順, 沙溪 등을 열거할 수 있다.<sup>17)</sup> [圖3 參照]

## 5) 標本構成 및 統計處理

調査의 標本은 民泊客實態調査의 경우 251 名 < 表3 參照 >, 民泊業實態調査의 경우 84 家口로 확정하였는 바, 이는 調査對象者들로부터 회수된 設問紙 가운데 記載內容이 부실하다고 半斷된 것들을 전부 제외 한 숫자이다. 또한 民泊施設現況에 대한 觀察調査의 標本은 民泊業實態調査에서와 똑같이 84 家口로 확정하였다.

한편 有效標本에 대하여는 SPSS 프로그램을 使用하여 背景變因別로 交叉分離分析을 試圖하였는데, 加급적  $\chi^2$  檢證 ( chi-square test ), F檢證 등의 統計的 檢證節次를 거침으로써 해석상 誤謬를 犯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16) 調査員으로는 本研究의 研究者 3 名과 함께 濟州大學校 觀光經營學科의 在學生 6 名이 動員되었음.

17) 단, 濟州道 가운데서도 表善 ( 3 家口 ), 今岳 ( 1 家口 ), 南元 ( 1 家口 ) 등은 除外되었다.

< 表 3 >

民泊客實態 調査對象者의 標本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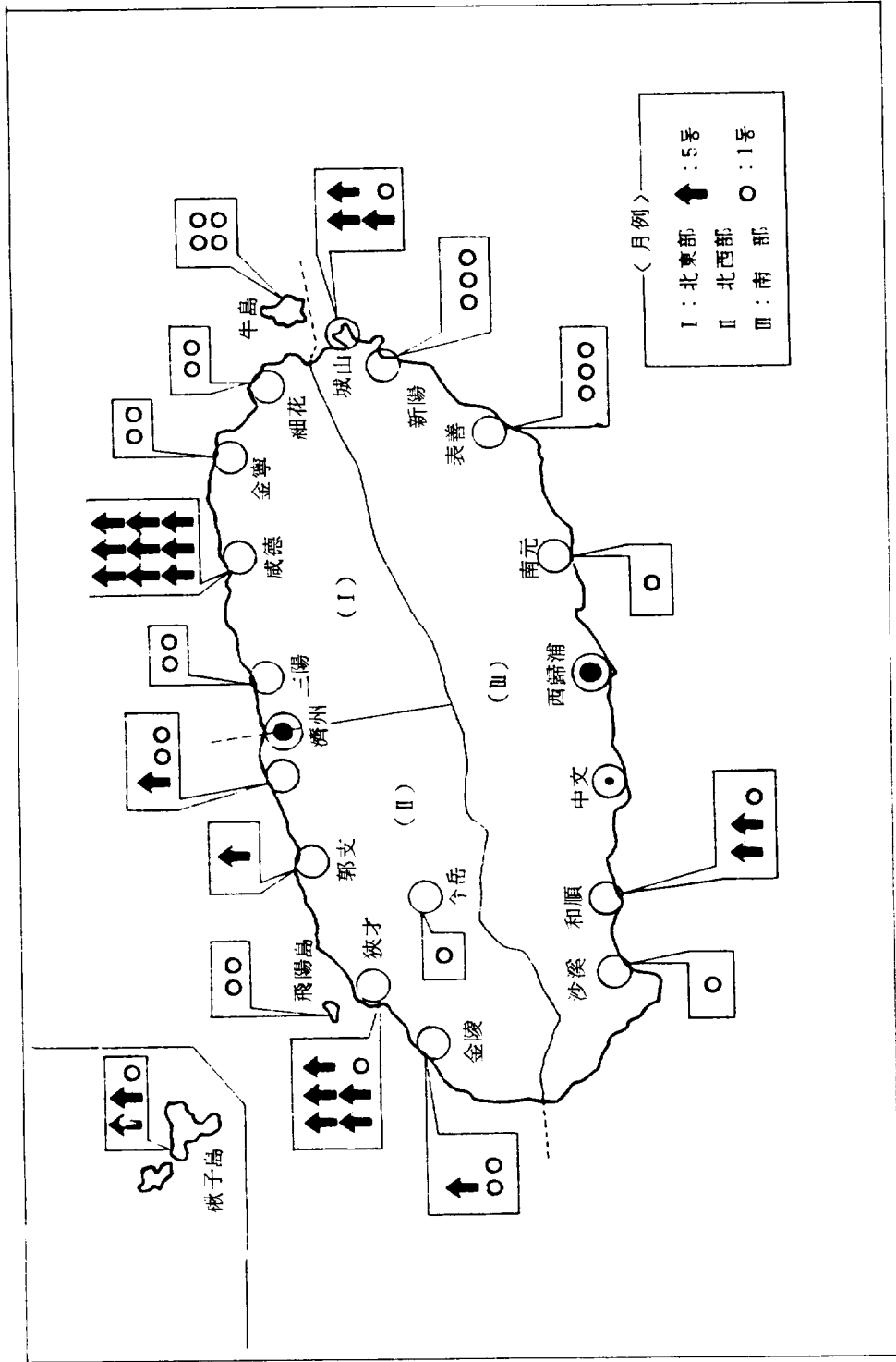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명)	구성비 (%)	구 분		사례수 (명)	구성비 (%)		
계		251	100	성 별	계 주 도	48	19.1		
남		156	62.2		거주지별	육지부대도시	113	45.0	
	여	95	37.8		육지부중소도시	81	32.3		
연 령	19 세 이하	5	2.0		육지부농어촌	7	2.8		
	20 ~ 29 세	119	47.4		해 외	2	0.8		
	30 ~ 39 세	74	29.5		방 문 횟 수 별	1 회	107	42.6	
	40 ~ 49 세	41	16.3			2 회	38	15.1	
	50 ~ 59 세	10	4.0	3 회		33	13.1		
	60 세 이상	1	0.4	4 회 이상		25	10.0		
	무 응 답	1	0.4	제주도 거주		48	19.1		
교 육 수 준 별	국 졸	1	0.4	여 행 형 태 별		개 인	6	2.4	
	중 졸	15	6.0			부 부	23	9.2	
	고 졸	100	39.8		가족 단위	53	21.1		
	대 재	44	17.5		친구·친지	128	51.0		
	대졸 이상	69	27.5		단체 모임	41	16.3		
	무 응 답	22	8.8		방문지별	북동부	합덕	119	47.4
	직업별	농림어업	13				5.2	세화	5
자영업		6	2.4	북서부		이호	16	6.4	
판매·서비스직		37	14.7			곽지	10	4.0	
사무·기능직		84	33.5			협재	47	18.7	
전문·자유직		18	7.2			금능	6	2.4	
주부		22	8.8			남부	성산	23	9.2
학생		47	18.7	신양			9	3.6	
무직		9	3.6	화순			16	6.4	
무응답		15	6.0						

註 : 教育水準別 가운데 大卒 이상에는 專門大卒이 포함됨.

<圖3>

指定民泊立地圖

(1987.12.31 현재)



## 2. 民泊客實態

### 1) 民泊動機

民泊을 하게 된 動機는 宿泊經費節減 (38.6%), 民泊經驗의 選好 (28.3%), 雨天 등 예정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16.3%)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其他의 動機로서는 宿泊地에의 好感, 團體旅行上의 共同補助 등 여러 가지 잡다한 事由가 지적되고 있다. <表4 參照>

이와 같은 비율을 놓고 볼 때 觀光客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民泊料金の 低廉性이 民泊投宿의 가장 큰 매력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民泊經驗에 대한 憧憬心이 民泊投宿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背景變因別로 살펴보면 年齡別 ( $p < 0.05$ ), 教育水準別 ( $p < .01$ ), 職業別 ( $p < 0.01$ ) 에서 有意的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表4> 民泊實態

N	응답구분 (%)					
	숙박경비 절감	민박경험의 선호	부득이한 사정	기타	무응답	계
251	38.6	28.3	16.3	16.7	-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	응답구분				통계치
			숙박경비 절감	민박경험의 선호	부득이한 사정	기타	
연령별	29세 이하	124 (49.6)	37 (29.9)	34 (27.4)	27 (21.8)	26 (21.0)	$x^2 = 13.066$ $df = 6$ $p < 0.05$ $M.O. = 1$
	30 ~ 39세	74 (29.6)	37 (50.0)	19 (25.7)	8 (10.8)	10 (13.5)	
	40세 이상	52 (20.8)	22 (42.3)	18 (34.6)	6 (11.5)	6 (11.5)	
	계	250 (100)	96 (38.4)	71 (28.4)	41 (16.4)	42 (16.8)	
교육 수준 유별	고졸 이하	116 (50.7)	57 (49.1)	33 (28.4)	9 (7.8)	17 (14.7)	$x^2 = 14.134$ $df = 6$ $p < 0.01$ $M.O. = 22$
	대재 이상	113 (49.3)	33 (29.2)	36 (31.9)	25 (22.1)	19 (16.8)	
	계	229 (100)	90 (39.3)	69 (30.1)	34 (14.8)	36 (15.7)	
직업 별	농림·어업	13 (5.5)	8 (61.5)	1 (7.7)	3 (23.1)	1 (7.7)	$x^2 = 43.616$ $df = 21$ $p < 0.01$ $M.O. = 15$
	자영업	6 (2.5)	1 (16.7)	4 (66.7)	-	1 (16.7)	
	판매·서비스직	37 (15.7)	20 (54.1)	11 (29.7)	5 (13.5)	1 (2.7)	
	사무·기능직	84 (35.6)	33 (39.3)	25 (29.8)	7 (8.3)	19 (22.6)	
	전문·자유직	18 (7.6)	6 (33.3)	8 (44.4)	2 (11.1)	2 (11.1)	
	주부	22 (9.3)	8 (36.4)	7 (31.8)	3 (13.6)	4 (18.2)	
	학생	47 (19.9)	12 (25.5)	11 (23.4)	18 (38.3)	6 (12.8)	
	무직	9 (3.8)	4 (44.4)	11 (11.1)	1 (11.1)	3 (33.3)	
계	236 (100)	92 (39.0)	68 (28.8)	39 (16.5)	37 (15.7)		

註) M.O = Missing Observations

年 齡 別 로 보 면 30 代 以 上 에 서 는 宿 泊 經 費 節 減 이 비 교 적 높 게 나 타 나 고 있 으 며 , 30 代 未 滿 에 서 는 예 정 에 없 는 부 득 이 한 사 정 이 나 름 대 로 무 시 하 지 못 할 비 율 로 서 나 타 나 고 있 다 .

教 育 水 準 別 로 보 면 高 卒 以 下 에 서 宿 泊 經 費 節 減 이 거 의 절 반 에 가 까 운 높 은 비 율 로 서 나 타 나 고 있 는 데 비 해 , 大 在 이 상 에 서 는 民 泊 經 驗 의 選 好 가 가 장 높 은 비 율 을 占 하 는 가 운 데 예 정 에 없 는 부 득 이 한 사 정 이 宿 泊 經 費 節 減 에 못 지 않 게 만 만 찰 은 比 率 로 서 나 타 나 고 있 다 .

職 業 別 로 보 면 農 林 · 漁 業 , 販 賣 · 서 어 비 스 職 및 無 職 者 의 경 우 宿 泊 經 費 節 減 을 , 自 營 業 및 專 門 · 自 由 職 의 경 우 民 泊 經 驗 의 選 好 를 , 그 리 고 學 生 의 경 우 예 정 에 없 는 부 득 이 한 사 정 을 가 장 높 은 비 율 로 손 꺾 고 있 음 을 보 게 된 다 .

## 2) 民 泊 投 宿 의 經 路

民 泊 에 서 의 投 宿 은 아 는 사 람 의 紹 介 를 통 해 서 ( 39.0 % ) , 現 地 의 案 內 看 板 을 보 고 서 ( 31.5 % ) , 隣 近 住 民 에 게 문 의 해 서 ( 27.9 % ) 라 는 方 式 으 로 이 루 어 지 고 있 다 . < 表 5 參 照 >

< 表 5 > 民 泊 投 宿 의 經 路

N	응 답 구 분 (%)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안내 간판을 보고서	인근 주민에게 문의해서	무 응 답	계
251	39.0	31.5	27.9	1.6	100

여기에서 注 目 되 는 사 실 은 인 근 住 民 에 게 문 의 해 서 投 宿 하 는 비 율 이 27.9 % 나 된 다 는 점 이 다 . 이 는 一 般 宿 泊 業 所 의 경 우 거 의 事 前 豫 約 또 는 현 지 의 營 業 看 板 을 통 해 投 宿 이 이 루 어 지 고 있 음 에 비 추 어 어 느 정 도 대 조 적 인 事 實 로 서 특 기 할 만 한 데 , 그 이 유 는 실 제 로 民 泊 家 屋 의 식 별 이 그 다 지 容 易 하 지 않 다 는 데 서 찾 아 볼 수 있 다 .<sup>18)</sup>

이 를 背 景 變 因 別 로 살 펴 보 는 경 우 별 다 르 게 有 意 한 차 이 가 나 타 나 지 않 고 있 다 .

## 3) 特 定 民 泊 에 서 의 宿 泊 日 程

特 定 民 泊 에 서 의 宿 泊 日 程 으 로 서 는 2 泊 ( 35.5 % ) 이 가 장 높 은 比 率 로 서 나 타 나 고 있 으 며 , 다 음 으 로 1 泊 ( 27.5 % ) , 3 泊 ( 23.5 % ) , 4 泊 ( 13.1 % ) 의 순 으 로 나 타 나 고 있 다 . < 表 6 參 照 >

18) 調 査 員 들 의 觀 察 調 査 結 果 調 査 家 屋 의 27.4 % 가 標 識 說 말 을 附 着 하 지 않 은 것 으 로 나 타 났 다 . < 表 18 參 照 >

< 表 6 >

特定民泊에서의 宿泊日程

N	응답구분 (%)					계
	1 박	2 박	3 박	4 박	무응답	
251	27.5	35.5	23.5	13.1	0.4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	응답구분				통계치
			1 박	2 박	3 박	4 박	
연령별	29 세 이하	123 (49.4)	41 (33.3)	47 (38.2)	21 (17.1)	14 (11.4)	$\chi^2 = 13.315$ df = 6 p < 0.05 M.O = 2
	30 ~ 39 세	74 (29.7)	12 (16.2)	28 (37.8)	21 (28.4)	13 (17.6)	
	40 세 이상	52 (20.9)	16 (30.8)	13 (25.0)	17 (32.7)	6 (11.5)	
	계	249 (100)	69 (27.7)	88 (35.3)	59 (23.7)	33 (13.3)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116 (50.9)	21 (18.1)	43 (37.1)	32 (27.6)	20 (17.2)	$\chi^2 = 8.013$ df = 3 p < 0.05 M.O = 23
	대재 이상	112 (49.1)	37 (33.0)	39 (34.8)	25 (22.3)	11 (9.8)	
	계	228 (100)	58 (25.4)	82 (36.0)	57 (25.0)	31 (13.6)	
직업별	농림·어업	13 (5.5)	2 (15.4)	3 (23.1)	2 (15.4)	6 (46.2)	$\chi^2 = 67.929$ df = 21 p < 0.000 M.O = 16
	자영업	6 (2.6)	3 (50.0)	2 (33.3)	-	1 (16.7)	
	판매·서비스직	37 (15.7)	10 (27.0)	5 (13.5)	16 (43.2)	6 (16.2)	
	사무·기능직	84 (35.7)	10 (11.9)	50 (59.5)	16 (19.0)	8 (9.5)	
	전문·자유직	18 (7.7)	5 (27.8)	7 (38.9)	6 (33.3)	-	
	주부	22 (9.4)	7 (31.8)	3 (13.6)	6 (27.3)	6 (27.3)	
	학생	46 (19.6)	22 (47.8)	10 (21.7)	9 (19.6)	5 (10.9)	
	무직	9 (3.8)	2 (22.2)	4 (44.4)	2 (22.2)	1 (11.1)	
계	235 (100)	61 (26.0)	84 (35.7)	57 (24.3)	33 (14.0)		
방문지별	북동부	123 (49.2)	14 (20.3)	49 (39.0)	42 (34.1)	18 (14.6)	$\chi^2 = 49.731$ df = 6 p < 0.000 M.O = 1
	북서부	79 (31.6)	38 (48.1)	24 (30.4)	14 (17.7)	3 (3.8)	
	남부	48 (19.2)	17 (35.4)	16 (33.3)	3 (6.3)	12 (25.0)	
	계	250 (100)	69 (27.6)	89 (35.6)	59 (23.6)	33 (13.2)	

이와 같은 宿泊日程은 來道觀光客의 平均滞在日程<sup>19)</sup>에 비추어 볼 때 一定場所에서의 宿泊日程으로서 비교적 긴 便이라고 생각되나, 道内の 民泊이 주로 여름철 海水浴場 부근에서 성행중임을 감안하는 경우 일말의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이를 背景變因別로 살펴보면 연령별 (p < 0.05), 教育水準別 (p < 0.05), 職業別 (p < 0.000),

19) 1984年度 경우 平均 2.8로서 推定되고 있다. 韓國觀光公社, 「全國民 旅行動態調査」, 1984, p.69.

訪問地別 ( $p < 0.000$ ) 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年齡別로 보면 30代 未滿에서는 1泊~2泊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反해, 30代 이상에서는 2泊~3泊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教育水準別로 보면 高卒 이하가 大在 이상보다 宿泊日程이 다소 긴 편이다.

職業別로 보면 農林·漁業, 販賣·서비스職 및 主婦의 宿泊日程이 단연 긴 데 비해 自營業 및 學生의 宿泊日程은 짧은 것으로 把握된다.

訪問地別로 보면 北東部, 南部, 北西部의 順으로 宿泊日程이 보다 길다고 할 수 있다.

#### 4) 旅行宿食費用

民泊客이 支出·計上하는 旅行宿食費用 (宿泊費 및 飲食費) 을 1人1日 基準으로 限定客, 額數別 分布를 살펴보면 3千~5千원 (45.4%), 5千~1萬원 (41.4%), 3천원 미만 (8.4%), 1萬원 以上 (4.8%)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7 參照>

<表7> 旅行宿食費用 (1人 1日 基準)

N	응답구분 (%)					계
	3천원 미만	3천원~5천원	5천원~1만원	1만원 이상	무응답	
251	8.4	45.4	41.4	4.8	-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	응답구분				통계치
			3천원 미만	3~5천원	5~1만원	1만원이상	
연령별	29세 이하	124 (49.6)	16 (12.9)	61 (49.2)	43 (34.7)	4 (3.2)	$\chi^2 = 13.386$ df = 6 p < 0.05 $M_0 = 1$
	30~39세	74 (29.6)	4 (5.4)	27 (36.5)	39 (52.7)	4 (5.4)	
	40세 이상	52 (20.8)	1 (1.9)	25 (48.1)	22 (42.3)	4 (7.7)	
	계	250 (100)	21 (8.4)	113 (45.2)	104 (41.6)	12 (4.8)	
직업별	농림·어업	13 (5.5)	-	8 (61.5)	4 (30.8)	1 (7.7)	$\chi^2 = 54.316$ df = 21 p < 0.001 $M_0 = 15$
	자영업	6 (2.5)	1 (16.7)	-	4 (66.7)	1 (16.7)	
	판매·서비스직	37 (15.7)	2 (5.4)	22 (59.5)	11 (29.7)	2 (5.4)	
	사무·기능직	84 (35.6)	5 (6.0)	31 (36.9)	46 (54.8)	2 (2.4)	
	전문·자유직	18 (7.6)	5 (27.8)	3 (16.7)	8 (44.4)	2 (11.1)	
	주부	22 (9.3)	-	6 (27.3)	14 (63.6)	2 (9.1)	
	학생	47 (19.9)	6 (12.8)	31 (66.0)	9 (19.1)	1 (2.1)	
	무직	9 (3.8)	-	7 (77.8)	2 (22.2)	-	
계	236 (100)	19 (8.1)	108 (45.8)	98 (45.8)	11 (4.7)		
방문지별	북동부	124 (49.4)	8 (6.5)	56 (45.2)	51 (41.1)	9 (7.3)	$\chi^2 = 16.881$ df = 6 p < 0.01
	북서부	79 (31.5)	5 (6.3)	30 (38.0)	41 (51.9)	3 (3.8)	
	남부	48 (19.1)	8 (16.7)	28 (58.3)	12 (25.0)	-	
	계	251 (100)	21 (8.4)	114 (45.4)	104 (41.4)	12 (4.8)	



그런데 濟州道를 訪問한 內國人觀光客의 경우 1人當 1日 平均 1萬 8千원 정도( 宿泊費 1萬 2千餘원, 飲食費 6千餘원 )의 旅行宿食費用을 支出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sup>20)</sup> 民泊客의 旅行宿食費用은 以上과 같은 支出分布로 보아 대단히 낮은 水準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背景變因別로 살펴보면 年齡別( $p < 0.05$ ), 職業別( $p < 0.001$ ), 訪問地別( $p < 0.01$ )에서 有意的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年齡別로 보면 대체로 年齡層이 높을수록 費用支出이 많다고 보아진다.

職業別로 보면 自營業, 事務·技能職, 專門·自由職, 主婦의 경우가 農林·漁業, 販賣·서비스職, 學生, 無職의 경우에 비해 費用支出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문지 별로 보면 北西部, 北東部, 南部의 順으로 費用支出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 5) 民泊經驗有無

民泊客 가운데 55.4% 程度가 이미 民泊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8 參照> 이를 背景變因別로 살펴보면 性別( $p < 0.01$ ), 年齡別( $p < 0.05$ )에서 有意的인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性別로 보면 男子의 경우가 女子보다 民泊을 경험했던 비율이 높다.

年齡別로 보면 30 ~ 39歲, 29歲 以下, 40歲 以上の 順으로 民泊을 경험했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8 > 民 泊 經 驗 有 無

N	응답구분 (%)			
	있음	없음	무응답	계
251	55.4	44.6	-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	응답구분		통계치
			있음	없음	
성별	남자	156 (62.2)	99 (63.5)	57 (36.5)	$\chi^2 = 10.050$ df = 1 p < 0.01
	여자	95 (37.8)	40 (42.1)	55 (57.9)	
	계	251 (100)	139 (55.4)	122 (44.6)	
연령별	29세 이하	124 (49.6)	64 (51.6)	60 (48.4)	$\chi^2 = 6.283$ df = 2 p < 0.05 M.O = 1
	30 ~ 39세	74 (29.6)	50 (67.6)	24 (32.4)	
	40세 이상	52 (20.8)	25 (48.1)	27 (51.9)	
	계	250 (100)	139 (55.6)	111 (44.4)	

20) 金泰保·許香珍,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 提高方案」, 「濟州道 道政施策에 관한 學術用役 最終報告書」, 濟州道, 1987, pp.96-99.

6) 이전의 民泊經驗時 滯留地域

〈表8〉에서 整理된 이전의 民泊經驗者 139 名을 대상으로 民泊經驗時의 滯留地域을 濟州道내·외로 구분 調査한 결과 濟州道이외 (64.0%), 濟州道内·外 兩쪽 모두 (22.3%), 濟州道内 (13.7%)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濟州道이외 他地域에서 民泊을 經驗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表9 參照〉

〈表9〉 以前の 民泊經驗時 滯留地域

N	응답구분 (%)				
	제주도 내	제주도 외	양지역 모두	무응답	계
139	13.7	64.0	22.3	-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	응답구분			통계치
			제주도 내	제주도 외	양지역 모두	
직업별	농림·어업	7 (5.3)	2 (28.6)	5 (71.4)	-	$\chi^2 = 23.945$ df = 14 p < 0.05 M.O = 118
	자영업	4 (3.0)	-	4 (100)	-	
	판매·서비스직	21 (15.8)	3 (14.3)	11 (52.4)	7 (33.3)	
	사무·기능직	46 (34.6)	1 (2.2)	35 (76.1)	10 (21.7)	
	전문·자유직	11 (8.3)	4 (36.4)	5 (45.5)	2 (18.2)	
	주부	13 (9.8)	2 (15.4)	7 (53.8)	4 (30.8)	
	학생	27 (20.3)	3 (11.1)	16 (59.3)	8 (29.6)	
	무직	4 (3.0)	2 (50.0)	2 (50.0)	-	
계	133 (100)	17 (12.8)	85 (63.9)	31 (23.3)		

이를 背景變因別로 살펴보면 職業別 (p < 0.05) 에서만 有意的인 차이를 發見할 수 있는데, 職業別로 보면 판매·서비스職, 主婦 및 學生의 경우 濟州道内·外 양쪽 모두에서, 自營業과 事務·技能職의 경우 濟州道 以外에서, 그리고 農林·漁業, 專門·自由職 및 無職의 경우 濟州道内에서의 民泊滯留經驗이 서로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7) 濟州道民泊과 他地域民泊의 比較

〈表9〉에서 나타난 바 대로 濟州道이외의 他地域에서 民泊을 經驗했던 120 名을 對象으로 濟州道内 民泊과 他地域의 民泊을 비교 조사해 본 결과 濟州道가 훨씬 좋음 (22.5%), 濟州道가 약간 나은 듯함 (33.3%), 거의 비슷함 (35.8%), 他地域이 약간 나은 듯함 (8.3%)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濟州道内 民泊이 他地域의 民泊보다 한층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表10 參照〉

〈表 10〉 濟州道民泊과 他地域民泊의 比較

N	응 답 구 분 (%)						계
	제주도가 훨씬 좋음	제주도가 약간 나음	거 의 비슷함	타지역이 약간 나음	타지역이 훨씬 좋음	무응답	
120	22.5	33.3	35.8	8.3	-	-	

이를 背景變因別로 살펴보는 경우 별다르게 有意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 主人과의 對面程度

民泊客이 생각하는 主人과의 對面程度는 對話도 하면서 친근히 지냄 (62.2%), 事務的인 對話만 교환 (30.3%), 그런 것에 關心없음 (5.2%)의 比率로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서로간에 親密한 對話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나〈表 11 參照〉, 한편으로 民泊의 特殊性을 고려할 때 主人의 歡待精神을 보다 더 재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表 11〉 主人과의 對面程度

N	응 답 구 분 (%)				계
	대화도 하면서 친근히 지냄	사무적인 대화 만 교환	관심없음	무응답	
251	62.2	30.3	5.2	2.4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	응 답 구 분			통 계 치
			대화도 하면서 친근히 지냄	사무적인 대 화만 교환	관심없음	
교수 준 육별	고졸 이하	113 (50.7)	80 (70.8)	25 (22.1)	8 (7.1)	$x^2 = 7.454$ df = 2 p < 0.05 M.O = 28
	대재 이상	110 (49.3)	66 (60.0)	41 (37.3)	3 (2.7)	
계	223 (100)	146 (65.5)	66 (29.6)	11 (4.9)		
방 문 지 별	북 동 부	119 (48.6)	78 (65.5)	33 (27.7)	8 (6.7)	$x^2 = 12.156$ df = 4 p < 0.05 M.O = 6
	북 서 부	78 (31.8)	40 (51.3)	33 (42.3)	5 (6.4)	
남 부	48 (19.6)	38 (79.2)	10 (20.8)	-		
계	245 (100)	156 (63.7)	76 (31.0)	13 (5.3)		

이를 背景變因別로 살펴보면 教育水準別 (p < 0.05), 訪問地別에서 有意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教育水準別로 보면 大在 以上보다는 高卒 以下에서가 主人과 親密한 接觸關係를 유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便이다.

訪問地別로는 南部, 北東部, 北西部의 順으로 主人과의 接觸關係가 보다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9) 投宿客間의 關係

民泊家屋內 다른 방에 投宿한 投宿客과의 關係는 서로 화기애애한 對話를 交換 (37.1%), 눈인사만 나누는 정도 (17.1%), 投宿事實은 아나 접촉이 없음 (22.7%), 이웃방에는 손님이 없음 (22.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表 12) 參照, 이러한 比率構成이 일반 宿泊業所보다 民泊에 대해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게 할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간 投宿客間의 家族的인 霧圍氣造成에 各別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表 12〉 投宿客間의 關係

N	응답구분 (%)					계
	서로 화기애애한 대화를 교환	눈인사만 나누는 정도	투숙사실은 아나 접촉이 없음	이웃방에는 손님이 없음	무응답	
251	37.1	17.1	22.7	22.7	0.4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	응답구분				통계치
			서로 화기애애한 대화를 교환	눈인사만 나누는 정도	투숙사실은 아나 접촉이 없음	이웃방에는 손님이 없음	
교수 준 육별	고졸 이하	116 (50.9)	55 (47.4)	18 (15.5)	20 (17.2)	23 (19.9)	$x^2 = 8.153$ df = 3 p < 0.05 M.O = 23
	대재 이상	112 (49.1)	33 (29.5)	21 (18.8)	30 (26.8)	28 (25.0)	
	계	228 (100)	88 (38.6)	39 (17.1)	50 (21.9)	51 (22.4)	
방 문 지 별	북 동 부	123 (49.2)	58 (47.2)	19 (15.4)	30 (24.4)	16 (13.0)	$x^2 = 32.135$ df = 6 p < 0.000 M.O = 1
	북 서 부	79 (31.6)	13 (16.5)	14 (17.7)	30 (25.3)	31 (40.5)	
	남 부	48 (19.2)	22 (45.8)	10 (20.8)	7 (14.6)	9 (18.8)	
계	250 (100)	93 (37.2)	43 (17.2)	57 (22.8)	57 (22.8)		

이를 背景變因別로 살펴보면 主人과의 對面程度에서처럼 教育水準別 (p < 0.05), 訪問地別 (p < 0.000)에서 有意的인 차이를 發見할 수 있다.

教育水準別로 보면 主人과의 對面程度에서와 마찬가지로 大在 以上보다도 高卒 以下에서가 投宿客間에도 有意的인 接觸頻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訪問地別로 보면 北西部의 경우 北東部 및 南部에 비해 投宿客間 有意的 接觸頻度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10) 投宿前後의 所感比較

民泊投宿前의 期待水準에 비추어 본 民泊投宿後의 느낌은 예상보다 좋음(48.6%), 예상대로임(30.7%), 잘 모르겠음(15.1%), 예상보다 나쁨(5.6%)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民泊客이 民泊投宿結果에 대해 대체로 滿스러운 反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表 13 參照>

이를 背景變因別로 살펴보면 訪問地別(p<0.05)에서만 有意的인 차이를 發見할 수 있는데, 訪問地別로 보면 南部, 北東部, 北西部의 순으로 호의적인 느낌의 비율이 한층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13> 民泊前後의 所感 比較

N	응답구분 (%)					계
	예상보다 좋음	예상대로임	예상보다 나쁨	잘모르겠음	무응답	
251	48.6	30.7	5.6	15.1	-	100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	응답구분 (%)				통계치
			예상보다 좋음	예상대로임	예상보다 나쁨	잘 모르겠음	
방문지	북동부	124 (49.4)	63 (50.8)	37 (29.8)	6 (4.8)	18 (14.5)	$\chi^2 = 15.251$ df = 6 p < 0.05
	북서부	79 (31.5)	28 (35.4)	26 (32.9)	7 (8.9)	18 (22.8)	
별	남부	48 (19.1)	31 (64.6)	14 (29.2)	1 (2.1)	2 (4.2)	
	계	251 (100)	122 (48.6)	77 (30.7)	14 (5.6)	38 (15.1)	

11) 民泊與件의 項目別 比較·評價

民泊에 投宿하는 동안 느낀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불편한 점을 모두 12個 項目으로 국한·분류시켜 各各 2가지씩 지적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단 한가지만의 지적까지를 포함해 가장 좋은 점의 경우 총 480個의 지적이 나왔으며 가장 불편한 점의 경우 총 459個의 지적이 나왔다. <表 14 參照>

이와 같은 指摘頻度를 놓고 濟州道의 民泊與件을 項目別로 비교해 볼 때 가장 좋은 점은 ① 周圍環境, ② 遊園地와의 거리, ③ 主人의 接待, ④ 民泊料金으로 파악되며, 가장 불편한 점은 ① 周圍商店 등에서의 쇼핑機會, ② 洗面室·化粧室 등 屋內施設, ③ 夜間慰樂施設, ④ 食事의 순으로 파악된다. 또한 잠자리의 경우는 좋다는 지적과 불편하다는 지적이 꽤나 엇갈리고 있는데 地域에 따라 상당한 偏差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를 訪問地別로 구분해 고찰하면 좋은 점 또는 불편한 點으로서 各各 頻度가 높게 지적된 項目間의 순위에 약간의 변동이 수반되고 있다.

北東部の 경우 가장 좋은 점은 ① 遊園地와의 距離(29.5%), ② 周圍環境(24.5%), ③ 主人의 接待(12.2%), ④ 잠자리(7.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反해 가장

< 表 14 > 民泊與件の項目別比較・評價

가 장 총 은 점			가 장 불 편 한 점		
방 문 지 별			방 문 지 별		
지 적 빈 도	사 례 수	비 율 (%)	지 적 빈 도	사 례 수	비 율 (%)
65	13.5	11.8	54	11.8	
15	3.1	7.2	33	7.2	
54	11.3	1.5	7	1.5	
22	4.6	19.0	87	19.0	
102	21.3	1.1	5	1.1	
64	13.3	1.5	7	1.5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1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114</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4.8</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101</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1.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2</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4.8</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8</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5.8</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85</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18.5</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16</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3.3</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32</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7.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3</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6</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9</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4</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0.9</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복동부 복서부 남</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 적 : 복동부(237)/복서부(153)/남부(90) 사례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48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10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459</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10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 적 : 복동부(226)/복서부(144)/남부(89) 사례수</p> </div> </div>

불편한 점은 ① 쇼핑機會(25.7%), ② 夜間慰樂施設(21.7%), ③ 屋內施設(16.8%), ④ 잠자리(10.6%), ⑤ 食事(8.4%)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西部의 경우 가장 좋은 점은 ① 周邊環境(19.6%), ② 遊園地와의 距離(17.0%), ③ 잠자리(15.7%), ④ 宿泊料金(13.1%), ⑤ 主人의 接待(13.1%)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反해 가장 불편한 점은 ① 쇼핑機會(22.9%), ② 屋內施設(22.9%), ③ 잠자리(16.0%), ④ 夜間慰樂施設(13.9%), ⑤ 食事(8.3%)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南部의 경우 가장 좋은 점은 ① 잠자리(25.6%), ② 宿泊料金(20.0%), ③ 主人의 接待(16.7%), ④ 周圍環境(15.6%)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反해 가장 불편한 점은 ① 쇼핑機會(25.8%), ② 屋內施設(18.0%), ③ 夜間慰樂施設(18.0%), ④ 交通便(16.9%), ⑤ 잠자리(7.9%)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民泊業實態

#### 1) 運營形態 및 與件 <表 15 參照>

##### (1) 實際運營期間

民泊業을 實際로 영위하기 始作한 時期를 자세히 調査해 본 결과 15年前부터라고 응답한 3家口가 가장 오래 동안 運營해 온 것으로 把握되는 가운데, 그 期間分布를 살펴보면 3年未滿(41.7%), 3年~6年(31.0%), 6年 이상(27.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平均 運營期間 역시 5年 정도로 추산되는 바 전반적으로 運營期間이 짧은 실정이다.

##### (2) 總 房數 및 客室數

民泊家屋이 보유하고 있는 총 房數는 平均 4.7室이며, 이 中 客室로 빌려줄 수 있는 房은 대개 3~4室로 생각할 수 있다.

##### (3) 民泊業의 動機

民泊業을 시작하게 된 動機로서는 家計收入에 보탬을 주려고(53.8%)가 가장 높은 비율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빈 房도 있고 남들도 하기에(27.5%), 당국의 권유에 의하여(15.0%), 집안이 너무 쓸쓸해서(3.8%)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民泊業은 주로 經濟的인 動機에 의해 영위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진다.

이를 民泊의 所在地別로 살펴보는 경우 有意的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p < 0.01$ ), 民泊業의 動機 가운데 ‘빈 房도 있고 남들도 하기에’라는 動機와 ‘당국의 권유에 의하여’라는 動機는 地域에 따라 큰 편차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진다.

##### (4) 實質運營者 및 家族의 參與

民泊業의 實質的인 運營者를 살펴보면 전체 民泊業의 95% 정도가 家口主内外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家族의 참여를 살펴보면 온 家族이 도우며 運營하는 경우가 56.1%, 實質運營者를



< 表 15 >

民泊業의 運營實態 및 與件

조사내용	응답구분	소재지별				통계치
		계	북동부	북서부	남부	
실제운영기간	3년 미만	35 (41.7)	14 (36.8)	6 (27.3)	15 (62.5)	$\chi^2 = 10.568$ df = 4
	3년~6년	26 (31.0)	16 (42.1)	6 (27.3)	4 (16.7)	
	6년 이상	23 (27.4)	8 (21.1)	10 (45.5)	5 (20.8)	
	평균 (개월)	60.4	57.7	80.2	46.5	F = 4.142 p < 0.05
총방수 (실)	2~3	19 (22.6)	8 (21.1)	8 (36.4)	3 (12.5)	$\chi^2 = 15.433$ df = 6 p < 0.05
	4	20 (23.8)	3 (7.9)	8 (36.4)	9 (37.5)	
	5	23 (27.4)	14 (36.8)	3 (13.6)	6 (25.0)	
	7~9	22 (26.2)	13 (34.2)	3 (13.6)	6 (25.0)	
	평균	4.7	5.2	4.0	4.7	F = 4.615 p < 0.05
객실수 (실)	1~2	21 (25.0)	6 (15.8)	5 (22.7)	10 (41.7)	$\chi^2 = 7.570$ df = 4 N, S
	3~4	43 (51.2)	20 (52.6)	14 (63.6)	9 (37.5)	
	5~8	20 (23.8)	12 (31.6)	3 (13.6)	5 (20.8)	
	평균	3.5	3.9	3.2	3.1	F = 3.143 p < 0.05
민박업의 동기	가계수입에 보탬	43 (53.8)	18 (50.0)	13 (59.1)	12 (54.5)	$\chi^2 = 19.041$ df = 6 p < 0.01 M, O = 4
	집안이 너무 쓸쓸해서	3 (3.8)	3 (8.3)	-	-	
	빈방도 있고 남들도 하기에	22 (27.5)	13 (36.1)	1 (4.5)	8 (36.4)	
	당국의 권유에 의하여	12 (15.0)	2 (5.6)	8 (36.4)	2 (9.1)	
실질운영자	가주주 내외	80 (95.2)	36 (94.7)	21 (95.5)	23 (95.8)	$\chi^2 = 0.042$ df = 2 N, S
	기타	4 (4.8)	2 (5.3)	1 (4.5)	1 (4.2)	
가족의 참여	온가족이 도우며 운영	46 (56.1)	28 (73.7)	8 (36.4)	10 (45.5)	$\chi^2 = 10.858$ df = 4 p < 0.05 M, O = 2
	실질운영자를 가끔 도움	4 (7.3)	3 (7.9)	2 (9.1)	1 (4.5)	
	실질운영자만 관여	30 (36.6)	7 (18.4)	12 (54.5)	11 (50.0)	
투숙객의 성별비율	남자가 30~50%인 경우	38 (45.2)	20 (52.6)	11 (50.0)	7 (29.2)	$\chi^2 = 4.111$ df = 4 N, S
	남자가 51~60%인 경우	33 (39.3)	13 (34.2)	7 (31.8)	13 (54.2)	
	남자가 70% 이상인 경우	13 (15.5)	5 (13.2)	4 (18.2)	4 (16.7)	
	평균 (남:여)	57:43	56:44	56:44	60:40	F = 2.060 N, S
투숙객의 연령별 비율	20~30대	52 (61.9)	20 (52.6)	11 (50.0)	21 (87.5)	$\chi^2 = 9.374$ df = 2 p < 0.01
	40~50대	32 (38.1)	18 (47.4)	11 (50.0)	3 (12.5)	
외국인 관광객의 민박유치에 대한 소견	적극 모색해야 함	38 (45.2)	19 (50.0)	6 (27.3)	13 (54.2)	$\chi^2 = 13.220$ df = 6 p < 0.05
	어떻든 유치시킬 필요	21 (25.0)	9 (23.7)	7 (31.8)	5 (20.8)	
	마지못해 받고 있음	14 (16.7)	2 (5.3)	6 (27.3)	6 (25.0)	
	관심 없음	11 (13.1)	8 (21.1)	3 (13.6)	-	

(계속)

( < 표 15 > 계속 )

조사내용	응답구분	소재지별				통계치
		계	북동부	북서부	남부	
인근 미지정 가옥에서의 투숙 현상	대단히 성행함	33 (39.3)	11 (28.9)	6 (27.3)	16 (66.7)	$\chi^2 = 13.995$
	일부에서 나타남	39 (46.4)	23 (60.5)	10 (45.5)	6 (25.0)	df = 4
	거 의 드 물	12 (14.3)	4 (10.5)	6 (27.3)	2 ( 8.3)	p < 0.01
인근 미지정 가옥의 민박 유치 성행에 대한 행정 제재	가끔씩 있다고 봄	5 ( 6.1)	5 (13.9)	-	-	$\chi^2 = 6.803$
	아무런 제재가 없음	77 (93.9)	31 (86.1)	22 (100)	24 (100)	df = 2 p < 0.05 M.O = 2
인근 미지정 가옥의 민박 업 영위에 대한 견해	조금 불만이나 어쩔수 없음	47 (57.3)	21 (58.3)	10 (45.5)	16 (66.7)	$\chi^2 = 6.950$
	방부족시에만 허용돼야 함	29 (35.4)	13 (36.1)	11 (50.0)	5 (20.8)	df = 6
	절대로 허용돼선 안됨	2 ( 2.4)	-	1 ( 4.5)	1 ( 4.2)	N.S
	도움이 될 수도 있음	4 ( 4.9)	2 ( 5.6)	-	2 ( 8.3)	M.O = 2
행정 당국의 지원	약간의 유명무실한 지원	5 ( 6.0)	4 (10.5)	1 ( 4.5)	-	$\chi^2 = 3.016$
	아무런 지원이 없음	79 (94.0)	34 (89.5)	21 (95.5)	24 (100)	df = 2 N.S

가끔 돕는 경우가 7.3%, 實質運營者 以外的 家族은 무관한 경우가 36.6%로서 나타나고 있다.

(5) 投宿客의 構成比

民泊業主의 입장에서 보는 投宿客의 構成비율을 자세히 調査해 본 결과 性別로는 男女가 6:4 정도의 비율로서 投宿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年齡別로는 20 ~ 30代와 40 ~ 50代가 投宿客의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서로 간 6:4 程度의 비율로서 投宿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6) 外國人觀光客의 民泊誘致에 대한 所見

外國人觀光客에 대한 民泊誘致에 관해서는 적극 모색해야 함이 45.2%, 어떠한 誘致시킬 필요가 있음이 25.0%로서 나타난 반면, 마지못해 받고 있음 16.7%, 별로 관심없음 13.1%로서 나타나 대체적으로 外國人觀光客의 民泊誘致에 대해서 꽤 關心이 높다고 할 수 있다.

(7) 民泊 未指定家屋에서의 投宿現況 및 그에 대한 所見

民泊業主를 통해 인근 民泊 未指定家屋에서의 投宿現況을 調査해 본 결과 대단히 성행함이 39.3%, 一部에서 나타남이 46.4%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反해 거의 드물음은 14.3%에 불과해 未指定家屋에서의 民泊投宿도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 시사되고 있다.

이를 民泊의 所在地別로 살펴보는 경우 有意的인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p < 0.01), 未

指定家屋에서의 民泊投宿現狀은 특히 南部地域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民泊 未指定家屋에서의 民泊誘致 盛行에 대하여 行政當局의 制裁는 거의 없는 것으로 調査되고 있다.

또한 民泊 未指定家屋의 實質的 民泊業當爲에 대한 指定家屋 民泊業主의 견해는 조금은 不滿이나 어쩔 수 없음(57.3%), 房의 부족시에만 허용돼야 함(35.4%), 絶對로 許容돼선 안 됨(2.4%),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음(4.9%)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편적으로 그와 같은 현상을 피동적으로 수긍하는 立場이라고 보아진다.

#### (8) 行政當局의 支援

民泊業主들은 民泊業에 대한 行政當局의 支援이 사실상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運營收入狀況 <表 16 參照>

#### (1) 家計生活에의 寄與度

民泊運營을 통한 收入이 家計生活에 寄與하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약간의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파악된다. 단, 주된 所得源 내지 무시하지 못할 比重을 차지하는 경우가 전체의 20%를 넘는 상당한 비율임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2) 運營期間 中の 收入 및 支出

民泊運營期間 中の 月平均 收入과 維持·管理費를 問議·調査해 본 결과 運營收入의 경우 23萬4千餘원으로, 또한 維持·管理費의 경우 4萬1千餘원으로 應答해 民泊運營期間 中の 純所得은 月平均 19萬3千원 程度로 추정된다.

#### (3) 運營收入趨勢

民泊業을 영위한 이후 現在까지의 收入추세에 대해서는 점점 增加(19.8%), 거의 비슷함(44.4%), 점점 減少(19.8%), 매우 불규칙적(16.0%) 등으로 應答해 얼핏 보아 收入趨勢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최근에 나타난 濟州道觀光客의 總體的 消費支出規模 增加趨勢 및 1人當 消費水準 增加趨勢를 감안할 때 매우 擔보적인 상태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濟州道內 民泊業이 대개 그 運營期間이 짧은데다가 동시에 대부분 海水浴場에 立地돼 氣像條件에 따라 收入規模가 一定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의 배후에 거의 비슷하다고 응답한 예가 많았을 거라고 추측되기도 한다.

이를 民泊의 所在地別로 살펴보는 경우 有意的인 差異가 발견되고 있는데( $p < 0.01$ ), 특히 南部地域에서 '점점 減少' 또는 '不規則的'이라 한 應答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4) 年間 收入狀況

民泊運營을 통한 年間 收入이란 물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無應答率이 높은 가운데 1986年の 경우 家口當 平均 39萬餘원으로 應答하고 있으며, 아울러 1987年度를 예상하는 경

< 表 16 >

民 泊 業 的 運 營 收 入 現 況

조사내용	응답구분	소 재 지 별				통 계 치
		계	북 동 부	북 서 부	남 부	
가계 생활에 의 기여도	무시못할 비중을 차지	17 (20.2)	8 (21.1)	5 (22.7)	4 (16.7)	$\chi^2 = 5.550$
	약간 도움이 됨	58 (69.0)	29 (76.3)	14 (63.6)	15 (62.5)	df = 4
	금전적 수입은 기대못함	9 (10.7)	1 ( 2.6)	3 (13.6)	5 (20.8)	N. S
월 경 균 수 입	10 만원 미만	14 (18.7)	6 (18.8)	1 ( 4.5)	7 (33.3)	$\chi^2 = 6.813$
	10 만~ 15 만원	22 (29.3)	10 (31.3)	8 (36.4)	4 (19.0)	df = 6
	15 만~ 30 만원	24 (32.0)	9 (28.1)	9 (40.9)	6 (28.6)	N. S
	30 만원 이상	15 (20.0)	7 (21.9)	4 (18.2)	4 (19.0)	M. O = 9
	평 균 ( 천 원 )	234.4	276.1	185.5	222.1	F = 0.728 N. S
월 유 지 관 리 비	1 만원 미만	14 (18.9)	3 ( 9.7)	2 ( 9.1)	9 (42.9)	$\chi^2 = 26.053$
	1 만~ 3 만원	20 (27.0)	4 (12.9)	11 (50.0)	5 (23.8)	df = 6
	3 만~ 6 만원	31 (41.9)	19 (61.3)	9 (40.9)	3 (14.3)	p < 0.000
	6 만원 이상	9 (12.2)	5 (16.1)	-	4 (19.0)	M. O = 10
	평 균 ( 천 원 )	41.7	58.7	27.4	31.4	F = 2.860 N. S
민박운영에 의한 수입 추세	점 점 증 가	16 (19.9)	9 (25.7)	5 (22.7)	2 ( 8.3)	$\chi^2 = 21.973$
	거 의 비 슷 함	36 (44.4)	14 (14.0)	16 (72.7)	6 (25.0)	df = 6
	점 점 감 소	16 (19.8)	8 (22.9)	-	8 (33.3)	p < 0.01
	매 우 불 규 칩 적	13 (16.0)	4 (11.4)	1 ( 4.5)	8 (33.3)	M. O = 3
작년도(1986) 연 간 수 입	12 만원 미만	10 (15.2)	5 (16.1)	1 ( 5.3)	4 (25.0)	$\chi^2 = 3.962$
	12 만~ 24 만원	21 (31.8)	8 (25.8)	7 (36.8)	6 (37.5)	df = 6
	24 만~ 48 만원	17 (25.8)	9 (29.0)	5 (26.3)	3 (18.8)	N. S
	48 만원 이상	18 (27.3)	9 (29.0)	6 (31.6)	3 (18.8)	M. O = 18
	평 균 ( 천 원 )	390.3	450.6	322.6	353.8	F = 0.621 N. S
금년도(1987) 연 간 예 상 수 입	12 만원 미만	11 (15.9)	6 (18.8)	-	5 (27.8)	$\chi^2 = 8.663$
	12 만~ 24 만원	15 (21.7)	4 (12.5)	6 (31.6)	5 (27.8)	df = 6
	24 만~ 48 만원	25 (36.2)	12 (37.5)	8 (42.1)	5 (27.8)	N. S
	48 만원 이상	18 (26.1)	10 (31.3)	5 (26.3)	3 (16.7)	M. O = 15
	평 균 ( 천 원 )	414.8	503.8	352.6	322.2	F = 0.912 N. S
요 금 수 준	대 폭 인 상 해 야 함	6 ( 7.1)	1 ( 2.6)	4 (18.2)	1 ( 4.2)	$\chi^2 = 20.136$
	올 림 이 바 람 직	38 (45.2)	26 (68.4)	3 (13.6)	9 (37.5)	df = 4
	적 당 하 다 고 봄	40 (47.6)	11 (28.9)	15 (68.2)	14 (58.3)	p < 0.000
	조 금 내 림 이 바 람 직	-	-	-	-	

우 이보다 6.3%가 증가한 41萬餘원으로 應答하고 있다.

그런데 民間運營을 통한 年間 收入水準이 최고로서 看做되는 民泊家屋의 경우 1986年度의 수입은 240萬원이었고, 1987年度에는 360萬원을 예상하고 있다.

### (5) 料金水準

現在의 民泊料金水準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봄(47.6%), 조금 올리는 것이 바람직(45.2%), 대폭 引上해야 함(7.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反해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應答은 전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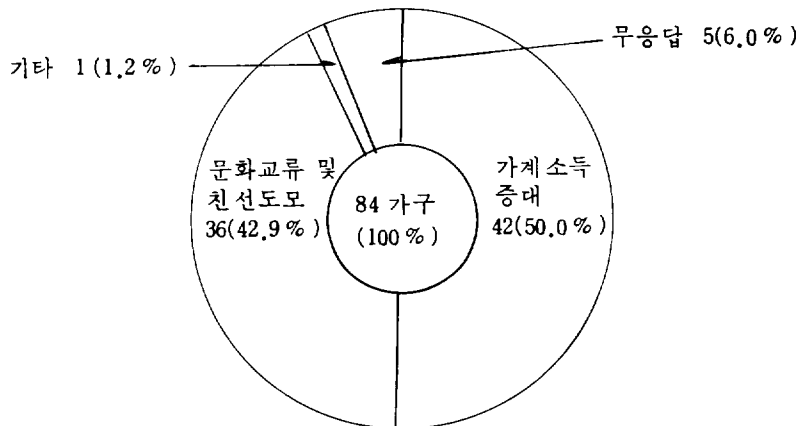
이를 民泊所在地別로 살펴보는 경우 有意의인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 $p < 0.01$ ), 특히 北東部地域에서는 조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其他 運營所感

民泊業을 營爲하면서 느끼는 所感 4가지를 開放式 質問에 의해 調査하였는 바, 그 應答 內譯의 範疇를 분류하면 各各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 (1) 가장 좋은 점

家計所得增大(50.0%)와 더불어 文化交流 및 親善圖謀(42.9%)가 쌍벽을 이룬 채 서로 엇비슷한 비율로서 나타나고 있다. <圖4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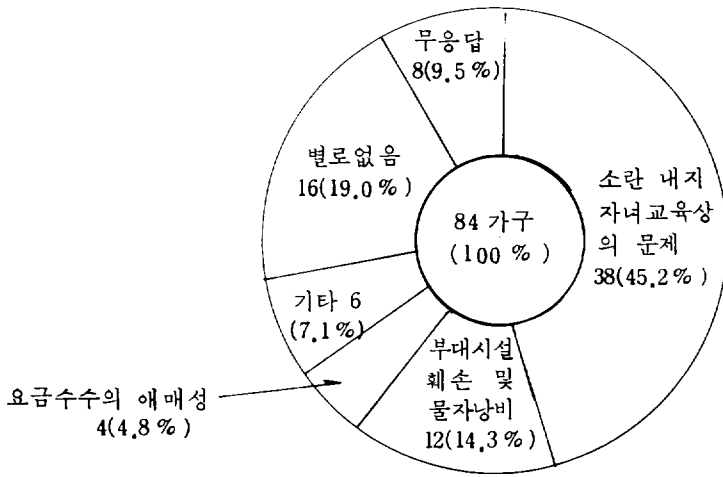
<圖4> 民泊運營時 가장 좋은 점

#### (2) 가장 불편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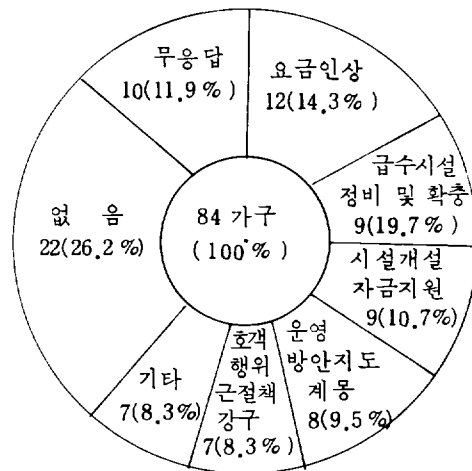
騒亂 내지 子女教育上的 문제(45.2%)가 가장 높은 비율로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다음으로 부대시설 훼손 및 전기·수도 등의 物資浪費(14.3%), 料金收受의 애매성(4.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圖5 參照>

#### (3) 行政當局에의 우선적 建議事項

料金引上(14.3%), 給水施設整備 및 擴充(10.7%), 施設改善 資金支援(10.7%), 運營方案 指導·啓蒙(9.5%), 呼客行爲 根絶策講究(8.3%) 등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圖6 參照>



〈圖 5〉 민泊運營時 가장 不便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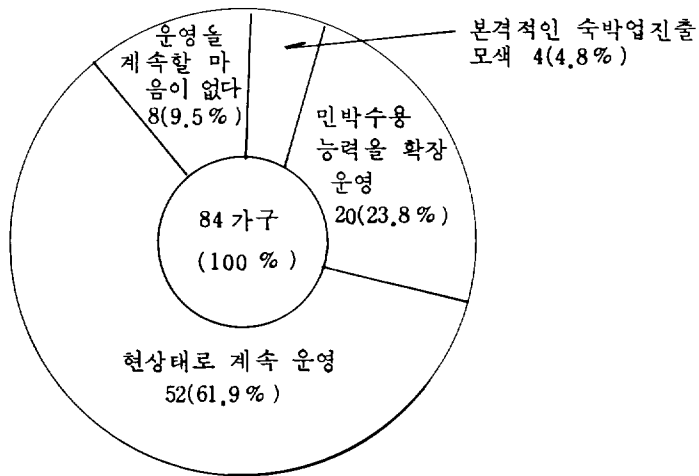


〈圖 6〉 行政當局에의 優先的 建議事項

(4) 向後 運營計劃

현상대로 계속 運營하겠다 (61.9%)는 意見이 支配的인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더 以上 運營을 계속할 마음이 없다 (9.5%)는 消極的 意見보다 민泊受容能力을 擴張 運營하거나 (23.8%) 또는 본격적인 宿泊業進出을 모색하겠다 (4.8%)는 積極적 意見이 한층 더 높은 비율로서 나타나고 있다. 〈圖 7 參照〉

이를 민泊의 所在地別로 살펴보는 경우 有意的인 差異를 발견할 수 있는데 ( $p < 0.01$ ), 특히 北東部地域에서 민泊의 擴張運營 또는 宿泊業進出에 積極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表 17 參照〉



〈 圖 7 〉 向後 運營計劃

〈 表 17 〉 所在地別 向後 運營計劃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	응답 구분				통계치
			본격적인 숙박업 진출 모색	수용능력 확장운영	현상대로 계속운영	운영을 계속할 마음이 없음	
소재지별	북동부	38 (45.2)	4 (10.5)	14 (36.8)	15 (39.5)	5 (13.2)	$x^2 = 18.523$ df = 6 p < 0.01
	북서부	22 (26.2)	-	3 (13.6)	19 (86.4)	-	
	남부	24 (28.6)	-	3 (12.5)	18 (75.0)	3 (12.5)	
	계	84 (100)	4 (4.8)	20 (23.8)	52 (61.9)	8 (9.5)	

#### 4. 民泊施設現況

##### 1) 觀察調査表에 의한 調査現況 〈表18 參照〉

###### (1) 隣近의 宿泊業所 立地

民泊家屋의 인근에 一般宿泊業所가 立地한 경우는 調査對象 전체의 65.5%로서 調査됐다. 이를 類型別로 자세히 살펴보면 旅人宿이 立地한 경우가 66.5%, 旅館이 立地한 경우가 56.0%였으며, 호텔은 전혀 立地하지 않은 것으로 調査됐다.

###### (2) 停留場과의 近接性

여름철 海水浴場 開場中에 버스路線이 延長 運營되고 있는 事實을 감안해 調査한 停留場과의 近接性은 100 m 이내 (41.7%), 100 ~ 500m (27.4%), 500 m 이상 (31.0%) 등으로 調査되었는 바 그러대로 良好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表 18 >

觀察調査表에 의한 施設調査現況

조사내용		척도		
		0	50	100(%)
인근의 숙박업소입지	존재 여부			
	여인숙			
	여관			
	호텔			
정류장과의 접근성				
표지 팻말	부착 여부			
	야간 식별			
건축 상태	층 수			
	주외벽 재료			
	외적 미관			
주위 환경				
요금표 부착 상태				

註: 標識팻말의 夜間識別은 바로 앞에 電燈이 設置돼 있거나 혹은 夜間에도 쉽사리 눈에  
되는 경우에 限해 可能하다고 봄.



(3) 標識팻말

民泊指定家屋임을 표시하는 市·郡 指定의 標識팻말이 부착된 경우는 調査對象 全體의 72.6%이며, 標識에 의해 夜間識別이 가능한 것은 全體의 34.5%에 不過한 것으로 調査되었다.

(4) 建築狀態

民泊家屋의 構造는 거의가 單層(92.9%)이며 主外壁材料가 대부분 시멘트(85.7%)인 것으로 調査됐다.

한편 建物の 外的 美觀은 美的(26.2%), 보통(67.9%), 추함(6.0%) 등으로 評價돼 거의 모두가 양호한 편이나, 指定民泊의 施設基準을 감안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엿 보이고 있다.

(5) 周圍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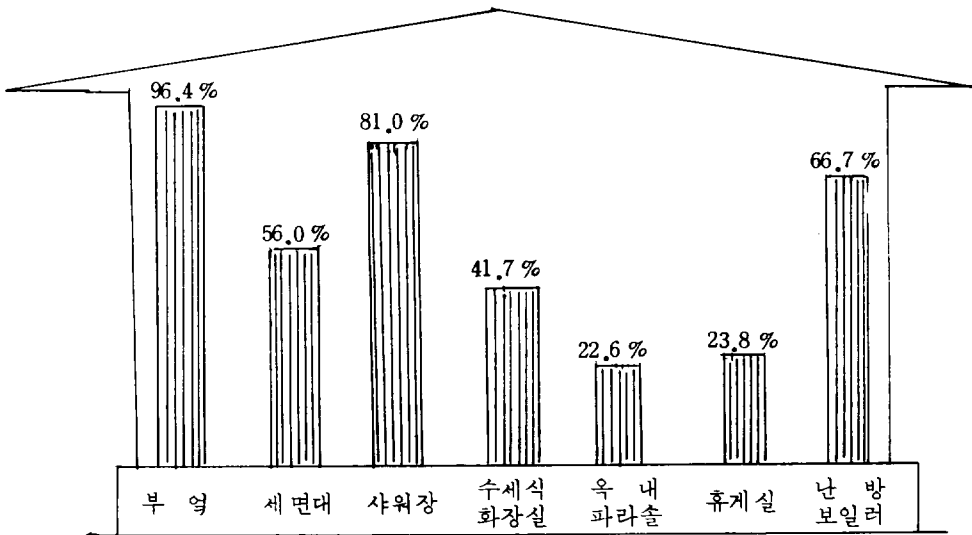
民泊의 周圍環境에 대해서는 매우 좋음(13.1%), 좋음(71.4%), 나쁨(15.5%) 등으로 評價돼 전반적으로 좋은 環境속에 立地해 있다고 짐작된다.

(6) 料金表 附着狀態

指定民泊의 경우 料金表를 제시하도록 指示받고 있으나, 그 제시상태가 바람직한 경우는 7.1%에 불과한 것으로 調査된 반면 附着조차 하지 않은 불량한 경우가 거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2) 設問調査에 의한 附帶施設 具備現況

民泊이 갖추어야 할 주요 附帶便宜施設 8가지를 선정해 設問調査對象 民泊業主들에게 객실의 具備與否를 質問한 結果, 그 具備率은 <圖 8>에서 보는 바대로 부엌(96.4%),



註: 暖房보일러의 경우 주로 연탄보일러로 施設되어 있음.

<圖 8> 設問調査에 의한 附帶施設 具備現況

샤워場 (81.0%), 暖房보일러 (66.7%), 洗面臺 (56.0%), 水洗式 化粧室 (41.7%) 等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休息室 (23.8%), 屋內 파라솔 (22.6%) 의 具備가 매우 低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民泊家屋指定臺帳에 의한 調査現況

濟州道內 각 시·郡廳에 비치된 ‘民泊家屋指定臺帳’을 통해 民泊施設現況을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表 19 參照>

<表 19> 民泊家屋指定臺帳에 의한 施設調査現況 (단위:棟)

구분	형 태	지역	북 동 부	북 서 부	남 부	계
구 조	블럭 스투트		24	13	-	37 (30.6)
	벽돌 스투트		13	16	15	44 (36.4)
	벽돌 슬라브		3	8	5	16 (13.2)
	석조 스투트		2	3	-	5 (4.1)
	기 와		1	-	8	9 (7.4)
	기 타		2	1	7	10 (8.3)
	미 조 사		3	-	-	-
건 평 (평)	10.0 이하		3	2	0	5 (4.0)
	10.1 - 15.0		11	7	1	19 (15.3)
	15.1 - 20.0		19	19	17	55 (44.4)
	20.1 - 25.0		11	4	4	19 (15.3)
	25.1 - 30.0		1	2	7	10 (8.1)
	30.1 이상		3	7	6	16 (12.9)
	미 조 사		-	-	-	-
객 실 수 (실)	1		9	3	1	13 (10.5)
	2		30	21	10	61 (49.2)
	3		2	10	13	25 (20.2)
	4		4	5	5	14 (11.3)
	5 이상		3	2	6	11 (8.9)
	미 조 사		-	-	-	-
화장실형태	수 세 식		12	12	15	39 (31.5)
	수 거 식		36	28	20	84 (67.7)
	재 래 식		-	1	-	1 (0.8)
	미 조 사		-	-	-	-
샤 워 장	유		32	32	26	90 (80.4)
	무		8	5	9	22 (19.6)
	미 조 사		8	4	-	-
합	계		48	41	35	

자료: 각 시·군, 「민박대장」, 1987.

註: 괄호안은 調査家屋에 한한 當該 形態의 % 比率임.

(1) 構造：大部分 벽돌스레트(36.4%) 이거나 또는 블록스레트(30.6%) 인 것으로 把握된다.

(2) 建坪：대개 10.1 ~ 25.0 坪(75.0%) 인데, 특히 15.1 ~ 20.0 坪(44.4%) 이 차지하는 比率이 높다.

(3) 客室數：2 室(49.2%) 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 室(20.2%) 4 室(11.3%), 1 室(10.5%), 5 室 以上(8.9%)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化粧室形態：대부분 收去式(67.7%) 이며 水洗式은 31.5%로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5) 샤워場有無：샤워장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는 비율로서 나타나고 있다.

## IV. 濟州道內 民泊業의 活性化方案

### 1. 民泊業活性化의 懸案問題

濟州道の 宿泊施設은 濟州市와 西歸浦市 두 都市內 中心市街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왔으며<sup>22)</sup> 이와 함께 野外慰樂活動의 터전인 觀光資源立地地域에서의 觀光宿泊需要는 아직까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濟州道の 民泊은 인근에 一般宿泊施設이 전혀 없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絶對 不足인 地域— 주로 海水浴場 부근—에서 現地에 到着한 觀光客의 기호와 요구에 부응하여 미미하게 自生돼 왔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濟州道 行政當局은 觀光開發事業의 效率의 추진을 위한 觀光客受容態勢 확립의 일환으로 1980年度부터 指定民泊制度를 적극 活用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觀光客의 편의증진을 위한 여건조성과 더불어 觀光盛需期 中の 宿泊客室不足難 解消」라는 의도하에 실시된 것이었을 뿐, 거기에 觀光地住民의 所得增大라는 目的은 다만 부차적인 것으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濟州道の 觀光開發 추진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地域觀光所得增大와 住民所得增大와의 괴리현상에 따라 觀光開發의 眞實性에 대해 강한 疑問이 제기되고 나아가서 종전에 취해온 開發目標와 開發方法에 대한 反省을 비롯해 開發哲學의 일대 전환으로서 內發的 開發( development from within )에 의한 開發推進方式이 비중있게 주창<sup>23)</sup> 되면서부터, 民泊業의 活性化는 종전과 달리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

21) <圖 8>에 掲載한 水洗式 化粧室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서는 島嶼地區가 包含돼 考察된 때문이라 생각됨.

22) 金敬昊, “濟州圈 觀光商品의 企劃과 促進課題”, 觀光開發研究「論文集」, 第3輯,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觀光開發研究所, 1986. p.5.

23) 高南旭·金泰保, 前掲論文, pp.207-209 및 夫萬根, 前掲論文, pp.48-50.

진다. 다시 말해서 民泊業의 活性化는 土產品 및 郷土飲食의 분야에서와 같이 零細한 道民 資本으로써 쉽게 觀光開發事業에 參與 開發利益을 수혜할 기회가 확대·제공된다는 점에서, 또한 현재의 여건상 大規模의 集中投資만을 중시했던 기존의 觀光開發 推進方式을 탈피시킬 수 있는 매우 제한된 대안들 가운데 한 가지라는 점에서 그 價値를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고찰한 바 대로 他地域의 民泊에 비해 한층 더 優秀할 뿐만 아니라 實際 投宿後의 所感 또한 대체로 滿足스러운 것으로 評價되고 있는 濟州道의 民泊實態는 현여건하에 띄고 무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問題의 所在은 하루 이틀 程度의 불편한 宿泊을 참고 旅行經費를 節約하려는 民泊需要者의 임시방편적 수단에서 하루속히 탈피시켜, 여하히 觀光客들의 關心對象 내지 매력대상으로 부각시키며 住民所得增大에의 기여폭을 확대해 나가느냐로 귀착한다고 볼 수 있다.

民泊業의 活成化를 통한 住民所得增大을 위하여 관계 당국은 중전처럼 觀光客위주만이 아니라 觀光地住民의 입장을 加味한 視角에서 향후 제반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인 바, 현실의 여건은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에 매우 어려운 處地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일정한 施設基準下에 指定돼 運營되고 있는 指定民泊과 이에 속할 수 없는 民泊 未指定家屋 間에 서로간 호객 행위 시비와 그에 따른 告發事態로까지 이르는 불미한 雜音이 발생하기도 하는데다, 그렇다고 指定民泊에 대하여 어떤 支援惠澤을 주는 것도 인근에 立地한 旅人宿 및 旅館에 별다른 혜택이 닿지 못하는 현재의 政策的 支援狀況을 고려할 때 선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더우기 濟州道內 民泊은 아직까지 주로 여름철 海水浴場 開場時의 일시적인 宿泊需要에 副應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쩌면 매우 非效率인 支援對象으로 전락할 우려가 없지 않으며, 한편으로 자칫 과도하게 그 活性化를 피하면 오히려 본래의 특성을 잃고 商業化할 소지가 큼으로 해서 새로운 問題만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民泊業活性化에 대한 行政當局의 政策的 배려는 微視的·漸進的 接近에 의해 순차적으로 수행돼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一般宿泊業所가 전혀 立地하지 않은 地域을 中心으로 適正水準의 基盤施設供給 및 受容零團氣造成에 各別한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民泊誘致에 따른 子女教育에의 支障, 騷亂惹起現象 - 消費風潮 및 遊興零團氣 蔓延事態 - 등은 간과할 수 없는 난제라고 짐작되는 바, 이에 대한 是正을 當事者들 間의 노력에만 일임하는 姿勢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外國의 家庭訪問制度(home visit system)에 대한 研究·紹介를 통해 民泊投宿에의 意識鼓吹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民泊投宿에 대한 경계심이라든가 또는 民泊受容忌避現象을 需要·供給者間 서로 제 거시켜 주기 위해 民泊經驗 또는 民泊水準에 대한 評判이 자연스럽게 소통될 機會를 확대해 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2. 民泊業의 活性化方案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濟州道內 民泊業의 活性化를 위한 政策的 支援方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 1) 生活環境基盤設施의 供給 擴大

民泊實態調査 結果에 의하면 民泊客들의 쇼핑機會의 결여와 夜間慰樂設施의 부재를 民泊投宿時의 가장 큰 불편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한편 民泊業主들의 立場에서는 給水設施의 整備 및 확충과 같은 요구가 제법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民泊家屋이 立地하고 있는 地域社會內 生活環境基盤設施의 保有水準이 全般的으로 낮다는 事實을 시사하며, 고로 民泊業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日常生活에 필요한 生活環境基盤設施의 供給 擴大가 先決되어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그런데 濟州道內 民泊은 거의 大部分이 海水浴場 부근에서 영위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 民泊이 立地한 地域社會의 生活環境基盤設施에 대한 전체 需要는 특히 海水浴場 開發事業의 規模에 비례하여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民泊業의 活性化에 있어서는 우선 海水浴場 開發計劃에 입각한 觀光基盤設施의 供給計劃을 踉蹌없이 遂行하는 데 그 시조를 두고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 施設改善資金의 融資支援

濟州道內 民泊家屋의 施設狀態는 國民生活패턴의 變化 및 一般宿泊業所의 高級化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점차 改善될 必要가 있을 것이며, 더우기 洗面臺, 水洗式 化粧室, 休憩室, 屋內과라솔 等 附帶便宜施設에 대한 民泊客의 수요증가에 대해서도 段階的인 대응태세를 確立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民泊家屋의 施設改善을 위한 어떤 支援手段의 마련이 民泊業의 活性化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선 指定民泊家屋 가운데 비교적 運營期間이 오래되고 誘致實績이 良好한 家口부터 施設改善 資金需要에 대해 低利融資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지원은 觀光團地造成, 觀光호텔建立 등 大規模 投資에만 일방적으로 集中돼 온 觀光振興資金의 運用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과 동시에 農漁村 副業團地로 指定되는 경우 年利 8%의 低리로 生産資金이 融資되고 있는 事實 等を 고려할 때, 지원의 형평성 유지라는 次元에 있어서도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아진다.

### 3) 案内서비스 및 弘報活動의 強化

濟州道內 民泊投宿은 비록 里·洞 事務所에서 案内센터가 運營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 民泊家屋의 識別조차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현지에 도착하여 소개와 問議를 거쳐

이루어지는 매우 未洽한 案内情報下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觀光案内機能을 擔當하고 있는 각종 機關 -예컨대 里·洞事務所, 觀光不便申告센터, 觀光協會, 旅行社, 旅行案内書 製作所 등-으로 하여금 민박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誘導해 나감과 동시에 指定民泊으로 登錄된 모든 民泊家屋의 所在地, 電話番號, 宿泊料金, 食事提供 가능여부 등을 記載한 民泊案内書를 埠頭·空港·市外버스터미널 등의 주요관문과 一般宿泊業所, 觀光關聯業所 등에 게시 또는 비치함으로써 民泊投宿에 관한 안내서비스 活動을 원활히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현재 부차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民泊家屋의 標識팻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親近的 象徴마크로써 民泊家屋임을 표시하도록 개선해 가고, 나아가서 夜間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識別하기 쉬운 높은 팻말로 代替함이 弘報的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新聞 등의 公益廣告를 이용하여 民泊投宿에 대한 PR 活動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 4) 運營方案指導 및 啓導活動

民泊業의 活性化에는 民泊運營에 대한 地域住民의 關心誘發 내지 參與度 鼓吹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우선 希望家屋을 대상으로 家屋丹粧, 衛生管理, 禮節交換, 내고장 소개, 民泊需要의 動向과 展望 등에 관한 無料 講座를 실시해 주는 한편 民泊運營에 의한 接客經驗이 一般宿泊業所에의 진출 내지 雇傭機會에 가 닿을 수 있도록 運營方案 指導事業을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

또 한편으로는 民泊家屋의 周圍環境 및 民泊施設狀態에 대한 點檢뿐만 아니라 民泊業主의 意慾과 能力 등을 수시로 확인해 地域內 民泊受容態勢의 缺陷을 사전 예방하고, 특히 일부에서나마 나타나고 있는 呼客行爲의 근절과 함께 民泊運營을 빙자한 無許可 宿泊營業行爲者의 적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동시에 건전한 宿泊雰圍氣를 定着시키기 위하여 深夜騒亂行爲에 대한 治安淨化와 같은 團東活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쏟아야 한다.

#### 5) 民泊村의 開發誘導

濟州道內 民泊家屋은 點的 分散立地로 인해 集積利益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國民觀光對象地로서 開發豫定인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地域産業과 密接한 -예컨대 觀光農園 혹은 觀光牧場- 宿泊施設團地인 民泊村을 造成·開發하는 方案<sup>24)</sup>도 충분히 고려할만한 價値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民泊村의 造成·開發은 새마을 事業과 같은 地域社會開發의 일환으로 그 構成員의 自主的인 財源調達과 共同協力下에 開發을 進행하는 自主開發方式에 의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sup>25)</sup> 다시 말해서 民泊村의 構成員들이 自主的인 組織體를 만들어 모든 開發은 그 組織體

24) 高南旭·金泰保, 前掲論文, p.218.

25) 上掲論文

의 주도하에 추진 내지 運營하는 方式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開發에 따른 制반 利益이 자연스럽게 그 地域住民들에게 還收될 수 있다는 커다란 長點이 洞보일 수 있으며, 또한 國民住宅建設事業과 병행 실시할 수 있기에 二重의 效果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26)</sup>

다만 民泊村의 造成·建設에 있어서는 非需期時 呼客行爲發生 및 기타 業이 造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社會·文化的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나친 大型化·群集化는 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 結 語

濟州道 觀光開發의 推進과정에서 地域觀光所得增大와 住民所得增大와의 離리가 눈부신 觀光成長에 비례하여 續 증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開發推進方式에 대한 反성과 比 判의 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地方行政當局과 道民 모두의 관심은 零細한 道民資本으로 餘하히 觀光開發事業에 參與해 開發利益을 受惠할 기회를 享有하느냐에 쏠려 있다고 보아지나, 그에 대한 效率的인 對策방안은 社會·經濟的인 制반 條件상 매우 制한 度 있는 實情이다.

그리하여 本고에서는 濟州道民의 實질적 觀光所得增大를 야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믿어 지는 濟州道內 民泊業의 育成·支援方案의 모색에 目標를 두고 諸般 研究活動을 수행하였 다. 結論적으로는 民泊實態調査로써 現況을 여러모로 分析·考察하는 한편, 그로부터 추출 된 感覺을 토대로 몇 가지 政策的인 支援方案을 강구해 보았는 바, 그 내용은

- 1) 生活環境基盤施設의 供給擴大
- 2) 施設改善資金의 融資支援
- 3) 案内서어비스 및 弘報活動의 強化
- 4) 運營方案指導 및 啓導活動
- 5) 民泊村의 開發誘導

등으로서 요약·제시했다.

끝으로 本考의 中心이 배운 民泊實態調査는 편의적인 踏査로 인해 精確한 實상을 파악 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未洽한 대로 주어진 條件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니 만큼 有關 연구에도 多少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 바이다.

---

26) 上掲論文

## 〈參 考 文 獻〉

1. 高南旭·金泰保, “濟州道 觀光開發과 道民所得增大 連繫推進方案”, 「社會發展研究」, 第2輯,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發展研究所, 1986.
2. 交通部, 「先進海外觀光施設制度視察 및 研修結果報告書」, 1987.
3. 國際觀光公社, 「國民觀光開發理論 및 外國의 開發事例」, 1978.
4. 金敬昊, “濟州圈 觀光商品の 企劃과 促進課題”, 觀光開發研究「論文集」, 第3輯,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觀光開發研究所, 1986.
5. 金光雄, 「社會科學研究方法論」, 博英社, 1976.
6. 金震燮, 「觀光學原論」, 大旺社, 1984.
7. 金泰保·許香珍, 「濟州地域 觀光所得 殘留效果 提高方案」, '87 濟州道 道政施策에 관한 學術用役最終報告書, 濟州道, 1987.
8. 朴壽伊·李愚泰, 「觀光企業經營論」, 博英社, 1974.
9. 夫萬根, “濟州地域開發의 現在와 未來: 觀光開發을 中心으로”, 「濟州道와 하와이間의 島嶼地域開發 協力」, 第1回 國際學術세미나報告書(發表要旨),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 1986.
10. 沈相道, 「觀光現象이 原住民 地域社會에 미치는 社會文化的 影響; 濟州道를 中心으로」, 京畿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11. 申幸澈, The Socio-cultural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in Cheju Island, 「濟州道와 하와이間의 島嶼地域開發 協力」, 第2回 國際學術세미나 報告書(發表 및 討論), 濟州道, 1987.
12. 吳澤燮, 「社會科學데이터分析法」, 圖書出版 나남, 1984.
13. 柳善茂, “새마을運動을 통한 東海岸의 民泊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서울市立大學附設 都市새마을研究所 「研究論叢」, 第1輯, 1982.
14. 田奇桓, “宿泊業者의 意識構造와 觀光客의 構造에 관한 調查研究: 江陵市の 경우”, 「觀光資源開發研究」, 第1輯, 關東大學 附設 觀光資源開發研究, 1982.
15. 丁碩重, “觀光事業이 地域社會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考察”, 「觀光開發研究」, 第4輯, 關東大學附設 觀光開發研究所, 1987.
16. 韓大鉉, “沿岸漁村의 觀光地化에 관한 研究: 前律1里의 民泊地域 形成過程을 中心으로”, 江陵教育大學「論文集」, 第8輯, 1976.
17. 韓大鉉, “嶺東地方에 있어서 民泊形成에 관한 研究: 觀光地周邊 沿岸漁村을 中心으로”, 江陵大學「論文集」, 創刊號, 1980.



18. 韓大鉉, “嶺東地方에 있어서 海濱型 民泊地域의 形成에 關한 研究”, 江陵大學 「論文集」, 第4輯, 1982.
19. Blalock, Hubert M., Jr., Social Statistics, 2nd edition, (USA : McGraw-Hill, Inc. 1972)
20. Norusis, Marija J., SPSS Introductory Guide; Basic Statistics and Operations, ( Chicago : McGraw-Hill Book Company, 1982)